metro®
메트로 2015년 6월 24일 수요일 제3243호 www.metroseoul.co.kr

News p/3



"삼성서울병원 '삼성' 떼야"

Economy p/6



최악의 가뭄, 채소값 두배

철철 넘치는 한국차의 힘





[르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가보니

현대·기아차 세계 첫 수직일관화 이룬 요람… 정몽구회장 의지 결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자동차에 최적화된 철강재를 직접 생산·공급하는 곳이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쇳물부터 완성차에 이르기까지 세계 처음으로 수직일관화를 이루게 된 의미있는 장소다. 자동차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강한 의지가 현대제철의 빠른 성장세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2일 충청남도 당진시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찾았다. 입구에 들어서자 서울 여의도 3배(882만㎡, 약 267만평) 크기의 대지위에 들어선 공장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철을 생산하는 용광로는 지저분하겠다는 예상을 깨고 공장외부와 증기를 내뿜는 굴뚝들은 단정해 보였다. 귀를 기울이자 공장 내부의 쿵쾅거리는 기계음까지 들렸다.

원료가 들어오는 부두에는 10대의 대형 하역기가 줄지어 서있다. 하역기는 호주, 브라질 등지에서 수입해온 철광석과 석탄 원료들을 컨베이어 벨트로 옮긴다. 원료는 벨트를 타고 친환경적으로 건립된 원형·선형구조의 밀폐형 저장소에 도착한다. 당진제철소는 지름 130m, 높이 65m의 원형저장소와 원료별·용도별로 저장이 가능한 칸막이형 선형저장소를 7개씩 보유하고 있다. 이 친환경 운반·저장설비에 현대제철은 500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송기원 당진제철소 의전홍보팀 대리는 "밀폐형 운반·저장설비는 비와 바람 때문에 철광석, 석탄 등의 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줘 친환경적"이라며 "내부 벽에 기대어 원료들을 쌓아 놓으면 적치 높이도 향상된다"고 말했다.

당진제철소엔 총 3개의 고로가 있다. 2010년 1·2고로 가동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3고로까지 합세했다. 각 고로는 연간 400만t의 쇳물을 뽑아낸다. 총 생산량은 연간 1200만t이다.

원료는 고로를 거쳐 1200도의 쇳물이 된다. 이 쇳물은 토페도카라는 특수차량에 실려 제강공정으로 옮겨진다. 제강공정에서 쇳물은 각종 불순물이 제거된 후 벽돌모양의 반제품 슬라브로 1차 가공된다. 이 슬라브가 열연공장에서 다시 고온 가열된 후 압연공정을 거쳐 완제품인 열연코일로 탄생한다.

B열연공장에 들어서자 슬라브는 쉴 새 없이 레일 위를 오가며 굉음을 만들어낸다. 1250도로 재가열된 슬라브는 20m거리에서도 뜨거운 열기를 내뿜어 콧등에 땀까지 맺힐 정도다. 이 슬라브는 본압연 전에 조압연을 거쳐 얇아진다. 얇아진 슬라브는 기계에 의해 돌돌 말고 펴짐을 반복한 후 하중이 더 무거워진 사상압연 과정을 거쳐 주문에 맞는 두께와 크기로 만들어진다. 마지막에 냉각을 거치면 돌돌 말린 완제품 열연코일이 탄생한다.

송 대리는 "고로에서 나온 60%가량의 쇳물을 제외한 것들은 모두 흙이다. 이 흙은 시멘트, 벽돌 등으로 만들어진다"며 "현대제철만의 자원순환형 사업구조는 다양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2냉연공장은 자동차용 강판을 연간 150만t 생산한다. 냉연공정은 우선 염산으로 열연강판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산세처리로 깨끗해진 강판은 상온에서 6-스탠드(6-Stands) 압연설비를 통과해 초고장력 자동차용 강판으로 만들어진다. 이후 열처리 과정을 거쳐 균일한 조직을 가진 강판으로 잡아준다. 마지막으로 부식을 최대한 방지하는 아연도금 공정을 거친다.

제2냉연공장의 주목할 만한 설비는 6-스탠드 압연설비다. 보통 5번의 압연공정을 거치는 일반 공장과는 달리 당진제철소는 6번의 압연공정 설비를 갖춰 더 가볍고 튼튼한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내년 2월부터 특수강 공장 상업생산을 시작한다. 이곳에서는 봉강과 선재를 각각 60만t, 40만t 등 연간 총 100만t을 생산한다. 이로써 자동차 철강소재 전문제철소가 완성된다. 현대제철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제철 측은 "자동차용 강판 생산만이 현대제철의 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조선사업에 만들어지는 후판, 건설용 후판·철근의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친환경 원료저장소 운영부터 제철 공정 중에 발생하는 가스도 재활용하는 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역주민과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철을 통해 현대·기아차에 최적화된 철강재를 직접 생산·공급해 자동차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은 2004년 한보철강공업 당진공장 자산을 인수한 이후 계획대로 진행돼 왔다. 2006년 일관제철소 사업을 본격 진행한 현대제철은 2010년 1·2고로 화입을 한 이후 2013년에는 3고로 가동에 들어갔다.

/정용기기자 yonggi@metroseoul.co.kr

신경숙 표절 인정… 창비, 책 출고정지 결정

"진심으로 사과… 작품집서 '전설' 빼겠다"
창비, 신 작가 발언 존중… 구체적 논의 진행



소설가 신경숙이 단편 '전설'에서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고 사과하자 해당 작품이 실린 단행본 '감자 먹는 사람들'을 낸 출판사 창비가 책 출고를 정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감자 먹는 사람들'은 1996년 창비에서 낸 신씨의 작품집 '오래전 집을 떠날 때'의 제목을 바꿔 2005년 재출간한 책으로 '전설'을 포함해 신씨의 중·단편 8편이 수록돼 있다. /연합뉴스

단편 '전설'(1996년작)에서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소설가 신경숙(52)이 "표절이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모호한 표현이지만 표절을 사실상 인정했다. 소설가 이응준(45)이 지난 16일 표절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만이다.

신 작가는 23일 공개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의 문장과 '전설'의 문장을 여러 차례 대조해 본 결과, 표절이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무리 기억을 뒤져봐도 '우국'을 읽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는 나도 내 기억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전설' 외에도 '기차는 7시에 떠나네' '작별인사' '엄마를 부탁해' 등 그의 작품 전반에 쏟아지는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떤 소설을 읽다보면, 어쩌면 이렇게 나랑 생각이 똑같을까 싶은 대목이 나오고 심지어 에피소드도 똑같을 때가 있다"면서 "일부 대목을 의도적으로 따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제기한 문학인을 비롯해 제 주변의 모든 분들, 무엇보다 제 소설을 읽었던 많은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출판사와 상의해 '전설'을 작품집에서 빼겠다. 문학상 심사위원을 비롯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다.

신 작가의 인터뷰가 나오자 인터넷 상에선 "교묘한 말장난" "회피성 발언" 등 비난 글들이 잇따랐다.

'감자 먹는 사람들'을 낸 출판사 창비는 책 출고를 정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감자 먹는 사람들'은 1996년 창비에서 낸 신 작가의 작품집 '오래전 집을 떠날 때'의 제목을 바꿔 2005년 재출간한 책으로 '전설'을 포함해 신 작가의 중·단편 8편이 수록돼 있다.

염종선 창비 편집이사는 "'감자 먹는 사람들'에서 문제가 된 '전설'을 빼겠다는 신씨의 발언을 존중한다"며 "오늘부터 이 책 출고를 정지하고, 이미 유통된 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뉴스원 제공

서울시, 버스노조 파업대비 비상책 마련

출퇴근 대중교통 증편 등

서울버스노동조합이 오는 25일 파업을 예고하자 서울시가 비상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23일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내버스사업조합과 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의 임금인상 등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사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버스노조가 파업 강행 시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증편 운행하고, 막차시간도 평일 기준 오전 2시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마을버스의 첫·막차 시간도 60분 연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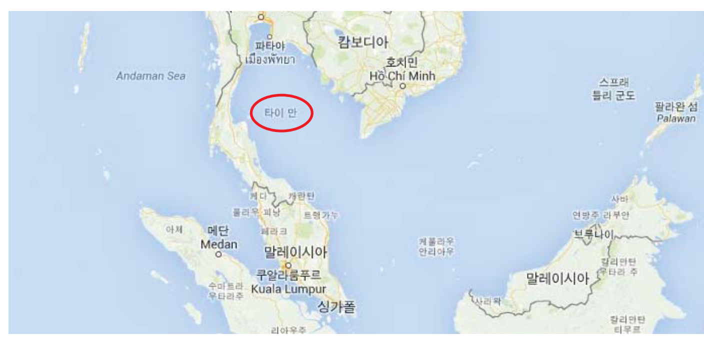
공무원 등 공공기관의 출근시간은 기존보다 1시간 늦춘 오전 10시로 변경한다.

또 자치구별로 전세버스 등을 임차해 출퇴근시간에 지하철 연계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택시·자가용 이용자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와 승용차 요일제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버스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을 지속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조정회의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형석기자 khs84041@

中, 남중국해-인도양 연결운하 건설



중국이 말레이반도의 태국 영토를 관통하는 운하를 추진하고 있다. 지도에서 타이만으로 표시된 왼쪽 지역이 건설 예정지로 알려졌다. 한·중·일 삼국의 생명줄인 싱가폴 인근 말라카해협을 대체하겠다는 의도다. 중국은 미국의 말라카해협 봉쇄를 두려워하고 있다. /구글맵

"중국의 생명줄 말라카해협, 미국 봉쇄 안두렵다"
해상 실크로드 부활의 핵심… 팍스 시니카 시동

중국이 태국을 관통해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잇는 운하건설에 착수한다는 소식에 중국 누리꾼들이 들썩이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일간지 남방일보는 최근 특종보도를 통해 "중국 기업이 태국의 쿠라 지협 운하의 연구와 투자 협력에 대한 각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보도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계획에 참가했다는 것은 들은 바 없다"고 언급, 사실상 시인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이로써 중국은 말라카 해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해양봉쇄전략에서 말라카해협 봉쇄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그 해결책이 제시된 셈이다. 싱가포르 앞 말라카 해협은 대항해시대부터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잇는 교통로 역할을 해왔다. 현대에 들어서는 한중일의 생명줄이나 다름 없다. 원유 수입이나 상품 수출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이 80% 이상이다.

운하는 태국의 쿠라지협을 관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라지협은 인도차이나반도에서 길게 뻗어나온 말레이반도의 중간지점으로 싱가포르가 붙어 있는 말레이지아의 바로 위쪽이다. 운하는 쿠라 지협에 약 280억 달러(약 31조원)를 들여 총 100km 길이로 건설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폭은 약 400m로 대형 선박의 교차 운항도 가능하다. 말라카 해협 경유보다도 약 1200km가 단축되며 항해 일수도 2~5일 정도 단축된다.

중국의 운하 건설과 관련해 지난해 말 중국계 기업이 중미 니카라과에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278km의 운하 건설을 개시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미국이 건설한 파나마 운하에 대항하려는 구상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은 현재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운하계획은 그 일부로 관측된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파키스탄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고대의 해상 실크로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전략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육상 실크로드 부활도 포함하고 있다. 육상 실크로드를 '일대', 해상 실크로드를 '일로'로 표현하고 있다.

완성된 이후는 물론이고 추진 과정에서 중국은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팍스 아메리카'에 이은 '팍스 시니카'의 등장을 예견하기도 한다.

'일대일로'의 핵심은 인프라 건설이다. 중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일대일로'를 위해 만들어진 금융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프라 건설자금 조달원이라는 이야기다.

/송병형기자

“삼성서울병원, ‘삼성’글자 떼야한다”

이재용 대국민사과… 삼성병원 ‘국민환원론’ 외면
국민 돈으로 세웠지만 ‘삼성家 상속에 이용’ 지적



1966년 9월 23일 이병철 전 삼성회장이 사카린 밀수 사건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사퇴와 함께 사카린 밀수 회사인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했다. /경향신문

“삼성서울병원에서 ‘삼성’이란 글자를 떼내야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대국민사과 직후 메트로신문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년간 국회에서 삼성 재벌 문제에 집중해 온 자타 공인 삼성 전문가다.

그는 “이 부회장의 사과는 내용면에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최소한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말 정도는 나왔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한국은 공공의료기관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음압병동을 설치하겠다는 식의 대책보다는 훨씬 의미 있는 사과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사카린 밀수사건(1966년)이 터졌을 때 이 부회장의 조부인 이병철 전 회장이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했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는 그보다 사회적 파장도 더 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더구나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의 돈이 아닌 삼성생명 보험계약자들의 돈으로 만들었으니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미 정치권에서 ‘삼성서울병원 국민환원론’이 제기된 마당이라 더욱 실망스러운 대국민사과였다”고 말했다.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는 대국민사과라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사과에 앞서 지난 15일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에서 삼성이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할 정당성이 없다며 국민에게 돌려줄 것을 이 부회장에게 요구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이다. 최근 부친인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받았다.

박 전 대표는 전날에도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삼성서울병원은 대부분 삼성에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불특정 다수의 삼성생명 보험계약자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삼성서울병원은 결국 국민의 돈으로 만들어진 병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어울리지 않는 수익사업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서울병원의 적자를 메운다는 명목으로 매년 수백억원 또는 천억원대의 기부금을 삼성 계열사들로부터 받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고액의 치료비에도 불구하고 병실 잡기도 어려울 만큼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지만 매년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삼성그룹이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일종의 상속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7.2%로 보유하고 있고,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생명 주식을 2.18% 보유하고 있다”며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이 회장이나 이 부회장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대국민사과가 삼성의 주인이 이 부회장으로 바뀐 것을 알리는 세레머니로 악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사과였다는 이야기다.

박 의원은 전날 “삼성서울병원 문제는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행 규정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가 있을 경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 부회장의 출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메르스 책임지고 물러나라”… 문형표 사면초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정부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 대처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폭격을 맞았다. 정부 초동 대응 실패와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질타가 계속해 이어졌다. 의원들은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정부 재난시스템의 보완과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질의자로 나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복지부의 허술한 대응과 안이한 판단을 비판하면서 문 장관에게 “사망자를 볼 면목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자진 사퇴 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추궁했다. 문 장관은 “어떤 경우, 어떤 이유로라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초동 대처가 미흡해 수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었다”며 “철저한 책임규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청와대 측근부터 보건당국 수장까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오른쪽)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문 장관 “어떤 경우에도 책임 회피할 생각 없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2년 전에 메르스 대책반을 만든 사실을 거론하며 “메르스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실제로 발병하고 나서도 낙타고기를 익혀 먹으라는 등 현실성 없는 대책을 홍보하고 우왕좌왕했다”고 질타했다. 또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중동 순방 시 낙타고기를 대접받은 바 있다는데 사실이냐”며 “대통령 순방 때 대비책이 없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웅래 새정치연합 의원도 “메르스에 대한 초기대응은 완전히 실패했고 이후 대응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돼 사태가 계속 확산됐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크게 비판했다. 경 의원은 “고령층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아군도 혀를 차는 ‘새정치 혁신안’

첫번째 혁신안, 기존 내용과 ‘도긴개긴’
실천이 관건이지만 계파갈등에 불투명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회가 첫 번째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파격적인 내용은 없었다. 기존에 거론됐던 방안들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실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지만 당내 사정이 복잡하다는 게 문제다.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싸고 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간 대립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과연 실현가능하겠냐’며 혀를 차는 소리까지 들린다.

23일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당규를 제정해 발표했다.

3분의 2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이뤄진 평가위원회 구성,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 등을 고려한 교체지수 적용 등의 조항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또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도 평가하는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외국 연수 등의 윤리 규범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헌 112조를 개정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공직자가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제한해 신인과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고자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공직선거 120일 전, 즉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혁신위는 또 당 기강 확립을 위해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 현역 의원과 당직자의 당직을 즉시 박탈하도록 했다. 재보선 원인 제공 시 해당 지역은 공천하지 않고 부패 연루자는 당직에서 박탈하는 한편 불법선거나 당비 대납이 적발되면 당원 자격 정지와 함께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사무총장 등의 당직 인선을 두고 최종 결론을 조율 중이다. 앞서 문 대표는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친노인 최재성 의원을 낙점했지만 당내 비주류 세력이 반발해 당직 인선 발표를 미뤄왔다. 이 원내대표는 “당을 깨자는 거냐”며 거칠게 반발하기도 했다. /윤정원기자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 법정서 가린다

참여연대,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 청구

횡령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법리 해석이 가열됐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법의 심판대에서 공개 여부를 가리게 됐다.

특수활동비 논란은 '성완종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입법로비'로 재판 중인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혹을 받는 돈의 출처를 각각 생활비와 아들 유학자금으로 해명하면서 횡령 의혹으로 불거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달 14일 국회를 상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의정 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이 요청한 정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 국회 일반회계의 4개 항목이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지난 8일 이 요청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3일 "국회사무처가 특수활동비에 대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옴에 따라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와 병행해 진행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청구서를 제출하며 2004년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한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사무처의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성완종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홍준표(왼쪽) 경남지사와 '입법로비'로 재판 중인 신계륜(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혹을 받는 돈의 출처를 각각 생활비와 아들 유학자금으로 해명하면서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횡령 논란으로 불거졌다. /메트로신문·연합뉴스

당시 대법원은 "정보를 공개해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 이를 비공개 정보로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용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 국가 기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사무처가 비공개 이유로 밝힌 '기밀유지 파괴로 인한 국가의 이익 저해'를 전면 반박하고 있는 셈이어서 향후 법적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두고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활동비가 의정 활동 명목으로 지원된 만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우세한 주장이다.

특수활동비 용처 논란이 일던 지난달 장진영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용도 외 사용으로 횡령이 맞다. 소득세를 내는 급여성격의 직책수당과 달리 특별활동비는 공금으로 분류해 횡령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폐지… 단독 재판부 증설

서울중앙지법이 민사합의 재판부를 4개 폐지하는 대신 단독 재판부를 증설한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1일자로 민사 단독 재판부를 증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민사합의 재판부 4개를 폐지해 법관 12명을 단독 재판부 재판장으로 배치한다. 이는 올해 2월부터 소가 1억~2억원 사건이 합의부 관할에서 제외되고 중액(1억원 이하) 및 소액(2000만원 이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반영한 조치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기존에 합의부를 이끌던 부장판사 4명은 고액 사건을 전담하는 단독 재판부를 맡고 배석 판사였던 8명 중 6명은 중액 사건을 맡는다. 2명은 소액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담당한다.

법원은 올해 2월 고액 단독 재판부를 8개 신설해 중액 단독을 겸임하는 체제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단독 재판부를 늘리면서 겸임을 해제하고 중액을 분리해 각각 6개와 8개로 개편했다. 또 중액·소액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중액 단독 재판부 4개, 소액 단독 재판부 4개를 추가로 만들었다. /연미란기자

인사

■ 대법원

◇ 대법원이사관 ▲부산고법 사무국장 심재금 ◇법원부이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동환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인천지법 사법보좌관 노수웅 ▲대구지법 사법보좌관 고영삼 ▲광주지법 사법보좌관 안준기 ◇법원서기관 ▲대전고법 박찬식 ▲광주고법 양충열 ▲서울중앙지법 김광훈 이경범 윤기준 강영구 홍성일 ▲서울남부지법 이분 최진도 ▲서울북부지법 한동욱 최웅 ▲서울서부지법 김정열 이홍규 최병일 ▲의정부지법 원철준 박경근 ▲인천지법 정명조 ▲수원지법 서민환 ▲대전지법 주진평 강길안 김수한 ▲대구지법 권미영 신대용 ▲울산지법 박영규 ▲광주지법 이민우 ▲광주가정법원 이준팔 ▲전주지법 박삼식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수원지법 장광수 ▲춘천지법 양연승 ▲대전지법 정병기 ▲청주지법 이석 양강인 ▲대구지법 홍준완 이유생 이재길 정동한 ▲창원지법 공건개 ▲광주지법 이원상 박범양 서홍석 ◇사서서기관 ▲법원도서관 이혜경 ◇기술서기관 ▲법원행정처 김갑수 ◇법원이사관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 이용선 ◇법원부이사관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 김재환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장 양담훈 ▲인천지법 부천지원 사무국장 곽재창 ▲수원지법 사무국장 조범제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무국장 박종희 ▲청주지법 사무국장 김진수 ▲제주지법 사무국장 강성진 ◇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김여일 박경식 이창우 정병문 이동룡 ▲사법연수원 유경중 ▲대구고법 김영숙 ▲서울중앙지법 엄내영 ▲서울행정법원 안달용 ▲서울동부지법 최자근 이채웅 ▲서울북부지법 최미화 ▲서울서부지법 김재선 윤문택 ▲의정부지법 조성대 정찬주 ▲수원지법 김호욱 박문양 박준의 ▲청주지법 권준식 ▲대구지법 곽병태 진종우 이상환 ▲광주지법 허의천 박광의 김종배 김창국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김경오 ▲서울중앙지법 조칠곤 나수경 전요안 하대웅 박정준 ▲서울동부지법 박상익 고혜신 ▲서울남부지법 박진현 ▲서울북부지법 정헌 ▲서울서부지법 지석재 강영석 ▲의정부지법 권오섭 박경신 유준열 주연 ▲인천지법 고병석 윤수종 강철원 ▲수원지법 신홍기 이소영 김진흥 안우정 ▲춘천지법 김민정 김진남 ▲대전지법 박영희 ▲대구지법 이희순 ▲울산지법 김진아 ▲전주지법 이진산 ▲제주지법 오충헌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집국장	강 세 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成, 김한길에 경선자금 제공' 정황 포착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이의 경선자금 성격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23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김 의원이 옛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이 치러진 2013년 5월을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불거져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최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받았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이 평소 친분이 두터운 김 의원을 돕겠다는 뜻에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은 김 의원이 2013년 초부터 당 대표 경선이 치러진 5월까지 성 전 회장과 빈번하게 만난 정황도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 등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한 자신의 측근 정치인에게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박모 전 경남기업 고문이 이 의원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박 전 고문은 이 의원의 정책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측근인 류승규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총선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수사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공동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한데 대해 김 전 공동대표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동아시아 관점에서 본 한일관계 해법'에 참석,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경남기업 관계자 조사과정 진술 받아내
김한길 24일·이인제 26일 검찰 출석 추진중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명목으로 성 전 회장 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역시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 자주 이름이 등장하는 정치인이다. 검찰은 김 의원과 이 의원 모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의원은 24일, 이 의원은 해외 출장을 마친 뒤인 26일쯤 검찰에 출석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의혹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의 소환 조사 방침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 검찰의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원도 받은 적 없다.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0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은 성 전 회장이 정권 실세 등에게 금품을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이 규명 대상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건평씨가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청와대 등에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경남기업 관계자로부터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건평씨와 성 전 회장 사이에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특사를 대가로 한 것인지도 수사하고 있다. /연미란기자

질병본부 개편 불가피… 복지부를 컨트롤타워로

의협 "보건의료 전문 차관제 도입해야"

한달 넘게 지속돼 메르스 사태가 주춤한 가운데 메르스 종식 후 국가 방역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한 질병관리본부의 전면 조직개편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대변인은 "현재 전국 시도 보건소의 직원 임명권은 시장과 도지사에게 있기때문에 이번 메르스사태처럼 긴박한 경우 조직관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전국 보건소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고 여기에 질병관리본부의 힘이 실려야 한다. 지금 질본의 역할은 너무 위축되어 있고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복지에만 치중된 복지부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없다. 이런 상태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보건의료 전문 차관이 있어야 공공의료에 힘을 실을 수 있고 질병관리본부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은 "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통제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현 체제(3센터)를 4부 1센터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방역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조직개편은 몇몇 과를 신설하는 수준의 개편안만으로는 종전의 실수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둘 경우 위기 상황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 실패는 전문가 그룹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시스템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장급이어서 각 부처의 역할을 조정하며 선제적 초기 방역을 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을 지휘해야 할 질병관리본부장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본부 상황실보다는 서울 충정로의 장관 집무실, 세종시 복지부 청사, 국회 등을 오가며 상부 보고에 더 많은 시간을 뺏겨야 했다.

이에 대해서도 의협의 신 대변인은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전문의가 없는 것은 큰 문제다. 하루속히 확충해야 하고 본부장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의협과 대한의학회 등 민간 의료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위기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야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한미정 사무처장은 "큰 틀에서 질병관리본부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방역체계의 일상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질병관리본부 조직을 연구원 중심에서 현장 역학조사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등 정부 방역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방역체계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연구원 중심의 정적인 조직이 아니라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본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의 개편안은 메르스사태가 종식되는 8월 이후 행정자치부, 청와대와의 조율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편안은 장관보고 후 내부 보완 중이다. 향후 정부조직법 수정 등 국회 논의가 필요할지, 정부 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U대회서 광주김치 맛보세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간인 다음달 3일부터 14일 광주에서 김치축제가 열린다. U대회 선수단이나 국내외 관광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체험은 오전 10시30분, 오후 3시20분 매일 2회 1시간씩 실시하며, 체험비는 무료다. 광주시는 행사 기간 체험시간에 맞춰 오전 9시40분과 오후 2시30분 하루 두차례 U대회 주경기장에서 김치타운으로 이동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연합뉴스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내일 첫 판결

등록금 인상 편법수단 활용

국·공립대가 등록금 인상 편법 수단으로 활용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첫 판결을 한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을 25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성회비는 1963년 각 대학에 설립된 기성회에서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자율적 회비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강제 징수됐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논란이 됐다. 국·공립대는 사립대가 1999년 기성회비 명목을 없앤 이후에도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묶어서 등록금으로 징수해왔다.

또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리는 '편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결국 2012년 기준으로 연간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달할 만큼 비중이 커졌다.

자연히 기성회비가 등록금 부담을 높인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일부 국립대는 2010년 집단적으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당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서울대 등 8개 대학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모두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지난달 춘천지법이 강원대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학생들이 묵시적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성회비를 낸 것이지 강제징수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상고심 판단에 눈길이 쏠렸다. 대법원에서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관결이 확정되면 현재 하급심에 계류 중인 다른 대학들에 대한 기성회비 반환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민사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효가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10년간 국공립대가 거둔 기성회비에 대해 추가적인 소송도 제기될 수 있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기성회비 반환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는 올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고 기성회비는 5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국·공립대는 이후 기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대학회계'라는 명목으로 걷고 있다.

/연미란기자 actor@

法, 통장잔고 '150만원 이하' 채권추심 못해

채무자 통장 잔고가 150만원 이하면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 대부업체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에서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이에 대한 압류나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의 예금잔액이 150만원을 넘는 것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대부업체는 김모씨 등 7명에게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하자 이들이 예금계좌를 개설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법원에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지만, 은행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A대부업체는 총 720만4910원을 달라고 주장했지만 은행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150만원) 금액의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김씨 등 7명의 예금채권 가운데 각자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 대부업체에 총 3220원을 지급하라고 관결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

서울시, 강원도 가뭄에 '아리수' 긴급 지원

서울시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가뭄지역에 병물 아리수를 지원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2일 가뭄으로 수돗물 제한급수 및 운반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와 동해시 등 7개 시군에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한 병물 아리수 10만 5000병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병물 아리수를 지원하게 된 지역은 속초·동해·삼척시와 평창·화천·양구·인제군 등 7개 시군으로 지원 물량은 350㎖ 9만병, 2ℓ 1만 5000병 등 총 10만 5000병이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에서 먼저 아리수 지원 의사를 강원도 각 시군에 타진하고, 해당 시군에서 수돗물 아리수 공급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강원도 지역의 가뭄이 지속될 경우 병물 아리수의 추가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페트병에 담긴 병물 아리수는 단수나 재해지역의 비상급수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에도 가뭄으로 극심한 식수난을 겪었던 경남, 전남, 강원 지역에 병물 아리수 35만여 병을 지원한 바 있다.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심각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강원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병물 아리수 지원이 서울시민과 강원도민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치선기자

최악의 가뭄… 채소값 두 배 이상 치솟아

중부지역 장마 늦어 가격 상승 지속될 듯

42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채소 값이 급등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제주도부터 장마가 시작돼 점차 북상할 전망이지만 이마저도 남부지방에서 끝날 것으로 전망돼 가뭄에 따른 채소 값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분석한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주요 채소 가격은 전년대비 최대 2배 이상 상승했다. 일부 품목들은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채소 가격 기준은 가락시장 도매가를 기준으로 하며 전국 채소 가격의 기준이 된다.

우선 배추는 10kg당 7014원으로 전년 3340원 대비 110% 상승했다. 양배추 가격은 8kg당 9655원으로 전년 3280원 대비 194% 올랐다. 이는 2011년 2242원 대비 4배 이상(330%) 상승한 것이다.

이 외에도 △양상추 8kg당 1만4563원(36%↑) △감자 수미 20kg당 2만8619원(60%↑) △대파 1kg당 2250원(146%↑) △무 18kg당 1만2966원(60%↑) △열무 1.5kg당 1566원(17%↑) △깐마늘 1kg당 5125원(41%↑) △양파 1kg당 904원(109%↑) 등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9개 주요 채소의 평균 가격은 85.88% 상승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농협유통이 제공한 하나로마트 주요 5품목 (배추·무·양파·대파·양배추)채소 가격 역시 전년대비 평균 75.38% 상승했다. 특히 양배추 가격은 1통에 3180원으로 전년 1280원 대비 148.4% 나 뛰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뭄으로 국내 채소 수확량이 감소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가뭄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곧바로 일반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제주와 남부지방은 24일부터 26일까지 장마소식이 있지만, 중부지방에 장마소식은 아직 없다"며 "당분간은 가뭄의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쳤다며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환자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치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의 대대적인 혁신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LS홍치전선, 462억원 자본잠식

4년 연속 당기순손실 기록… 재무구조 악화

LS전선이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인수한 LS홍치전선이 적자의 늪에 빠져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S홍치전선은 2011년 이래 4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LS전선은 지난 2009년 중국 용딩그룹이 보유한 전력선전문제조업체 홍치전기의 지분 75.14%를 약 200억원에 인수했다. 현재 LS전선은 LS홍치전선의 지분 91.47%를 보유하고 있다.

LS홍치전선은 2011년 234억원 적자, 2012년 134억원 적자, 2013년 164억원 적자에 이어 지난해 당기순손실 208억원을 기록했다.

만성 적자는 재무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자본은 2011년 마이너스 63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말 마이너스 462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LS전선은 LS홍치전선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4월 LS전선은 LS홍치전선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 유상증자에 참여해 646억4150만원 상당의 출자증권을 취득했다. 뿐만 아니라 LS전선은 지난 19일 LS홍치전선에 대해 167억640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

앞서 올해만해도 118억5000만원, 164억490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한 바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지난해 회사 매출 4조원에 비해 LS홍치전선의 손실이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며 "B2B기업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 내 수천개 기업 중 작은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단기에 좋아지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임은정기자 eunj71@

금융위 '서민금융지원 방안' 발표

대부업 고금리 인하·4대 서민상품 공급 확대

금융당국이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계 최고금리를 29.9%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연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는 1.5%포인트 인하키로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서민금융 공급 확대·금리 인하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서민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7대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한다.

또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현재 연 4조5000억원에서 연 5조7000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미소금융은 각각 2조5000억원, 2조5000억원, 5000억원으로 늘어나며 바꿔드림론은 2000억원 수준에서 지속 공급되는 형태다.

오는 8월부터 이들 대출 상품의 상한 금리도 1.5%p 내린다. 이렇게 되면 2018년까지 신규로 총 270만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키로 했다.

고금리가 완화되면 현재 30%이상의 대출을 이용 중인 270만명의 이자부담이 4600억원 가량 경감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연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정책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특히 1년 이상 4대 정책 금융상품을 성실상환한 사람들에게는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이내에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 발급도 허용한다.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주거비 부문에서는 연 7~8%대인 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연 3~4% 은행 저금리 대출로 전환확대하고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2000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1200만원 상당의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선 500만원 한도의 연 4.5% 저리 대출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한편 금융회사와 연계를 통한 서민 금융 공급도 이어진다.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자가 자금지원의 공백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징검다리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장기간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연 9% 금리에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은행과 저축은행간 연계영업을 확대해 은행에서 저축은행의 10%대 대출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상품 지원대상은 종전보다 완화하고 채무조정과 일자리, 재산 형성을 연계 지원하는 '연체자 대상 자활 패키지 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어 수요자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안은 서민과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을 모두 포괄한 것"이라며 ""전체 저금리 서민대출과 채무연체자 신용회복 등을 통하면 약 600만명의 금융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LIG손보, KB 품으로… 그룹 시너지 기대

보험업 특성 고려 '서금회' 김병헌 LIG사장 유임
지주사 손보 편입·복합점포 보험 판매 시 유리

KB금융그룹이 LIG손해보험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KB손해보험이 새롭게 탄생한다. 이미 KB생명을 보유한 KB금융이 LIG손보까지 품에 안으면서 앞으로 비은행부문에서 얼마만큼의 시너시를 낼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B금융은 지난 19일(현지시간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 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 LIG손보 인수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KB금융은 오는 24일 LIG손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KB손보를 새롭게 출범시킨다.

KB손보의 초대 CEO는 김병헌 LIG손보 사장이다.

김 사장은 최근 1년 동안 매각 이슈로 어수선한 LIG손보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LIG손보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7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기도 했다.

다만 김 사장은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인 '서금회' 멤버로 재선임 과정에서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대해 LIG손보 관계자는 "김 사장은 평사원으로 입사해 30년간 보험 전문가로 실력을 인정받았고 CEO가 돼서도 직원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 등에 신경을 많이 써 평이 좋은 인물"이라며 "내부적으로는 기대가 크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KB금융이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해 김 사장을 재연임하기로 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경영 성과를 바라봐야 한다"며 "저금리가 장기화되며 어려워진 보험업계에서 KB손보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조직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기존 CEO의 지휘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LIG손보, KB 계열사와의 각종 시너지 창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IG손보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4조원의 총자산을 보유 중이다. KB금융은 LIG손보를 인수함으로써 421조3000억원의 총자산을 445조원으로 불려 신한금융(416조원)을 제치고 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됐다.

KB손보는 KB금융의 자회사 부문에서 총자산 282조에 달하는 KB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자회사가 된다. 이어 KB국민카드(15조원), KB생명(7조원), KB투자증권(4조원) 순이다.

이로써 KB금융은 전체 자산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에서 71%로, 당기순이익 비중은 70%에서 64%로 떨어지는 한편 비은행 부문의 기여도를 높여 사업 다각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LIG손보는 암보험, 실손보험, 간병보험 등 장기보험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속설계사 규모가 커 은행 의존도가 높은 KB생명의 약점을 보완하게 된다.

KB금융 관계자는 "카드 부문에서는 이미 KB국민카드가 LIG손보와 손잡고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처럼 KB손보와 KB캐피탈 간 자동차 복합상품 개발, KB손보와 KB생명 간 교차판매 채널 확대 등 그룹 내 다양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 복합점포'도 KB손보에 아군이 될 전망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 상품을 한 금융지점에서 판매하는 복합점포에 보험업이 추가되면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며 "손보업계 점유율 4위인 LIG손보가 KB손보로써 KB국민은행 창구를 활용해 영업한다면 보험 판매 실적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서민금융 자활 지원할 것"

임종룡, 맞춤형 지원 강화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23일 "서민금융이 실질적으로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앞으로 서민금융의 정책방향은 공급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부담이 경감토록 지원돼야 한다"며 "특히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분께는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연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는 1.5%포인트 인하키로했다.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이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상품 확대로 연간 47만명에서 60만명의 서민이 정책금융 자금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며 "지원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8년까지 총 270만명에게 정책 서민자금 22조원을 신규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상한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선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가 1.5%포인트 인하 시) 매년 최대 800억원 수준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도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한다.

임 위원장은 "고금리가 완화되면 현재 3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270만명의 이자부담이 4600억원 가량 경감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정책금융을 성실히 상환 중인 분들에게는 5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제도금융권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원제도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주거와 교육, 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는 2000만원으로 증액된다. 또 고금리 전세대출 이용자가 3~4%대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을 개편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저소득층 가구 교육비 대출상품과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상품, 장애인 자활을 돕는 대출 상품 등 다양한 서민금융 신상품을 올 하반기 중 출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민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채무조정과 일자리 제공, 매칭 저축상품 가입 3가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도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8년까지 채무를 연체 중인 6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단순한 금융공급이 아니라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메르스 피해 평택 안중시장 방문 신한카드 위성호 사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23일 오전 평택 안중시장을 방문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 세번째),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앞줄 왼쪽 네번째), 시장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의 물건을 둘러보고 있다. /신한카드 제공

1Q 가계 여윳돈 30조 육박

소비심리 위축에 3년來 최대

올 1분기 가계에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여윳돈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여파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1분기 중 자금순환'에 따르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잉여자금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새로운 국제기준(2008 SNA)을 적용해 자금순환 통계를 낸 2012년 1분기(31조5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잉여자금이란 예금이나 보험, 주식투자 등으로 굴린 운용자금에서 조달자금을 뺀 것으로 규모가 증가할 수록 가계가 돈을 쓰지 않고 쌓아뒀음을 의미한다.

실제 같은 기간 민간소비 증가율은 고령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로 전기 대비 0.6%에 그쳤다. 가계 소득은 늘었지만 지갑은 열리지 않은 셈이다.

한편 금융회사를 제외한 국내 기업(비금융법인)은 이익 개선의 영향으로 자금부족 규모가 지난해 말(7조3000억원)보다 3조원 가까이 줄어든 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금운용 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전분기(9조5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여기에는 자금조달 규모가 9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조7000억원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일반정부의 1분기 자금조달 규모는 38조원으로 지난해 4분기의 5조1000억원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자금운용 규모는 32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8조2000억원 확대됐다.

같은 기간 국외 부문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 자금부족 규모가 27조9000억원에서 27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한편 3월말 현재 총 금융자산은 1경4105조원으로 작년 12월말 대비 3.8% 증가했다.

/백아란기자

오피스텔, 무한 '타입' 경쟁

아파트 대체 상품 급부상 2~3룸·2면 개방형 등 다양



복층형으로 꾸며진 대농지구 롯데캐슬 시티 53F 평면도.

원룸형의 천편일률적 설계만 선보이던 오피스텔이 평면 경쟁에 뛰어 들었다. 5~6개는 기본이고, 20개 이상의 타입을 선보이는 오피스텔까지 등장했다.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용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변하면서 주거만족도를 높이려는 수단으로 다양한 평면이 부각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3룸, 2면 개방형, 욕조가 있는 욕실 등 아파트에서나 볼법한 평면이 오피스텔에도 잇달아 적용되는 추세다.

이처럼 다양한 타입의 오피스텔이 등장하는 데는 수요자 취향 반영 외에도 높은 아파트값이 영향을 미쳤다. 신혼부부를 비롯한 20~30대 젊은층들이 비싼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지로 오피스텔을 꼽으면서 비롯된 것이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팀장은 "소득 대비 높은 아파트 가격, 1인과 2~3인 인구의 증가로 오피스텔이 소형주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최근 아파트처럼 다양한 평면으로 지어진 오피스텔이 청약 결과가 좋은 것도 이 같은 이유다"고 말했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 오피스텔은 51실을 공급하면서 무려 36개 타입을 선보였다. 그 결과 532명이 접수해 10.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1군(34~38㎡)은 14.8대 1의 최고 청약률을 보였다.

지난 19일 충북 청주 대농지구에 서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롯데캐슬 시티'는 오피스텔임에도 주말까지 3일간 1만5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원룸과 투룸 9개 타입으로 상품을 구성했다. 특히 일부 세대에는 테라스를 조성했고, 복층 타입도 선보였다.

대우건설이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에 분양한 '성남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는 20개 타입으로 설계됐다. 지난 12일 모델하우스 오픈 후 주말까지 70%의 계약률을 올렸다. 20개 타입 중 93%가 전용면적 20~28㎡의 소형이고, 40~49㎡ 88실은 거실 포함 2룸 구조다.

이 외에도 수원 영통에 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한 '영통역 아이파크'가 A~G타입 7개로 구성됐다. 서울 용산에서 삼성물산이 선보인 '래미안 용산SI'도 총 15개 타입으로 꾸며졌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부천 옥길 호반베르디움' 흥행 예고

서울·광명·부천 트리플 생활권 메르스 악재 속 수천명 다녀가

#호반건설이 경기도 부천에 첫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를 선보인다.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으로 주목받는 옥길지구 안에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벌써부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메르스, 궂은 날씨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모델하우스 앞는 수천명의 방문객과 수십명의 떴다방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부천 옥길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를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옥길지구 C1블록 '부천 옥길 호반베르디움'은 지하 2층, 지상 15~29층, 16개동이다. 전용면적 ▲72㎡ 406가구 ▲84㎡A 369가구 ▲84㎡B 141가구 ▲97㎡ 504가구 등 전체 1420가구로 구성됐다. 지구 내 들어서는 민간분양 아파트 4곳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옥길지구는 범박동과 옥길동, 계수동 일원에 총 9300가구, 2만600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조성되는 2차 보금자리 택지지구다. 부천에서는 오랜만에 선보이는 공공택지로, 그린벨트를 풀어 지정돼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되는 곳이다.

특히 서울·광명·시흥 등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구를 지나는 7개의 버스를 이용하면 부천시내는 물론, 광명과 여의도로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한 KTX광명역세권, 구로·가산디지털단지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다만 2㎞가 넘는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아쉬운 점이다. 국철1호선 역곡역, 지하철7호선 온수역·천왕역 3개 역 모두 도보권 밖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부천도 역세권 아파트가 더 비싸기는 하지만 서울에 비해 지하철망이 촘촘하지 않아 역세권 여부에 덜 민감한 편"이라며 "그보다는 오랜만에 공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라는 점과 개별 아파트의 입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많다"고 말했다.

부천 옥길 호반베르디움이 들어설 C1블록은 이마트(예정), 중심상업용지, 공원용지 등이 가까워 지구 내에서도 입지가 좋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도보로 10분가량 소요되고, 큰 도로를 건너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박선옥기자 pso9820@



금감원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고 업계 특수성 등 감안해야 할 쟁점이 상당하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 대우건설 본사. /뉴시스

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 쟁점은

금감원, 회사·외부감사인에 중징계 확정 업계 "고의성 입증·건설업 특성 고려해야"

금융감독원이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분식회계의 경우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고, 그간 건설업계의 관행인 만큼 쉽사리 징계를 확정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에 대해 다음달 7일 감리위원회를 열고 회계처리 위반에 관한 제재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감리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전심의기구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들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감리하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대우건설과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게 관련 사안의 소명을 위해 이번 감리위에 참석할 것을 통보했다.

최근 금감원 대우건설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해당 업체에 통지한 데 따른 것이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 최대 20억원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금감원의 중징계 방침에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제보를 통해 지난 2013년 12월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로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금감원은 대우건설이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장부상 미반영 손실금)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중징계를 예고한 지난 19일 금감원은 대우건설의 대손충당금을 4000억원 규모라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에 발표한 미반영 손실금의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실금 축소에 대해 "최근까지 2012년 회계에 포함된 사업장 70여곳의 전수조사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분식회계의 고의성도 입증해야하는 상황이다.

분식회계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산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2012년 회계상 대우건설이 고의로 손실금을 미반영했다는 증거가 필요한 것.

하지만 건설업 특성상 초기 기획 단계에서 나온 손실 추정치 미반영을 과소계상하지 않는점을 감안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 관계자는 "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은 초기 기획 단계의 경우 업계 관례상 충담금을 과도하게 잡을 수는 없다"며 "대체로 건설사는 공정률이 70% 되는 시점에 손익을 추정하고 원가를 재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도 금융당국의 조치에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제보자가 2013년 당시 최악의 상황을 가상한 내부 문건을 금감원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면서도 "말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본 문서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문건에 있었던 김포 풍무 푸르지오의 경우 지난 2013년 초 완판됐지만 이 사업도 상당부분 충담금을 마련했었다"며 "사업 초기부터 대규모 충당금을 막대하게 쌓게 되면 건설업상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84041@

中 피아노 교육 열풍… 삼익악기 주가 춤춘다

| 마켓인사이트 |

'삼익악기'가 해외 공장 증설과 중국 피아노 교육 열풍에 따른 수혜로 부활의 날개짓을 시작했다.

삼익악기의 주가는 중국 피아노 시장 수혜로 지난해부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올 4월 21일 5400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한달여 만에 4300원대로 빠졌다가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다.



中 피아노 보급률 증가로 올 주가 가파른 상승세
인도네시아 공장 증설… 원가 개선효과도 기대

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익악기는 전일대비 2.30% 오른 4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처럼 주가가 최근 상승한 것은 인도네시아 공장 증설 완료와 중국 피아노 교육 열풍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 피아노 시장은 전세계 피아노 판매량의 55%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국의 피아노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5%가 채 안된다. 선진국의 평균 피아노 보급률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삼익악기의 중국 대리점도 기존 400여개에서 450여개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정기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중국 피아노 시장은 전세계 피아노 판매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최대 시장"이라며 "최근 중국의 중산층 확대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피아노 교육 열풍이 불면서 보급률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연구원은 "중국 중고가 피아노 시장에서 약 21%(2014년 기준)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삼익악기의 중국 매출이 지난해 450억원에서 올해 69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동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도입기에 들어선 중국 악기시장의 고성장과 중국 매출 확대(연평균 24.8%)에 대한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며 "올해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의 경기 회복과 소비 확대로 매출의 71%(2014년 기준)를 점유하는 중국 외 시장의 점진적인 회복도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중국에서의 '문화 마케팅'도 적극적이다.

정규봉 신영증권 연구원은 "삼익악기가 중국 상하이시와 연계해 '삼익-자일러 콩쿠르'를 개최한다고 공개했다"며 "이 행사는 상하이시 후원을 받아 8만명의 학생이 참가하고, 시상식과 수상자 음악회는 중국 국영 CCTV가 중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삼익악기는 이 행사를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SK의 장학퀴즈(장위안방)처럼 장기적 문화 행사로 지속할 계획"이라며 "중국 피아노 시장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국영방송에 삼익악기의 이름으로 콩쿠르가 방송되는 광고 효과는 산정이 어려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공장 증설 완료에 따른 원가 개선 효과도 주가에 호재다.

정 연구원은 "최근 증설이 완료된 삼익악기의 인도네시아 공장은 업라이트 피아노 생산설비를 기존 연간 3만대 생산규모에서 증설 후 연간 4만대 규모로 33% 생산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삼익악기는 이번 공장 증설을 통해 늘어나는 중국 수요에 원활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국내 증시, 모처럼 활기 찾았지만… 중장기 상승 동력 여전히 '안갯속'

국내 주식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지만, 랠리 지속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안갯속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론 지수가 반등할 여건이 마련됐다"면서도 "상승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23일 코스피는 그리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완화된 데 힘입어 2080선을 뛰어넘었다.

그리스 우려 완화 힘입어 코스피, 2080선 돌파

추경 규모 등 기관 행보 코스피 반등 폭 달려

이날 코스피지수는 26.04포인트(1.27%) 오른 2081.20으로 마감해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지수는 16.14포인트(0.79%) 오른 2071.30으로 개장한 뒤 기관의 매수세 속에 빠르게 고점을 높였다. 코스닥은 연중 고점을 새로 찍으며 시가총액 2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날 증시가 상승한 것은 그간 증시의 발목을 잡아온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간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관련 회의를 이번 주 중에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모든 것이 잘된다면 우리는 이번 주 후반에 최종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대내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기대감도 지수에 호재로 작용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상승 흐름을 타겠지만, 중장기적인 상승 동력은 찾기 어렵다"면서 "추경 규모 등에 따라 코스피가 2100선에 안착할지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갈지 좌우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선 정부의 경기보강책과 수급여건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올 들어 국내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던 외국인은 이달 들어 지난 22일까지 9997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이에 반해 줄곧 순매도를 해오던 기관은 지난 16일 이후 6거래일째 매수세를 나타냈다.

김진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리스 문제가 봉합되기 전까지 외국인들의 귀환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관의 행보에 코스피의 반등 폭이 달린 셈"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메르스 영향으로 인한 내수 위축과 기업 2분기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등도 부담 요인이다. 그리스 협상 역시 최종 타결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스는 여전히 추가 긴축을 반대하고, 독일을 포함한 주요국 재무장관들은 아직 협상을 낙관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내놔 불확실성은 잔존해 있다.

/김민지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로 해외 여행을 계획했던 내국인과 국내 여행을 하려던 외국인들의 국적 항공기 예약 취소 인원이 최근 13일간 17만41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 게이트 앞으로 마스크를 쓴 공항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항공株, 다시 날갯짓

메르스 확산 이전 주가 회복 예약 취소도 줄어 반등 기대

"아직 보수적 대응 필요" 신중한 투자 목소리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움츠러들었던 항공주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전일대비 350원 (0.89%), 100원 (1.56%) 상승한 3만9700원과 65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메르스 '공포감'이 확산되기 전인 이달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3만8850원과 6560원이었다.

메르스 격리조치자가 5586명으로 최고였던 지난 15일 대한항공 주가는 3만5200원,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5680원으로 각각 1일 이후 9.3%, 13.4% 가량 떨어지며 이달 들어 최저가를 기록한 바 있다.

격리조치자가 2805명으로 줄어들었던 23일 주가도 제자리로 반등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의 6월 탑승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이달 들어 지난 18일까지 취소 여행객 수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탑승률이 70.3%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탑승률은 79.8%였다. 예약 취소 현황도 이달 들어 지난 22일까지 10만4000명을 넘어섰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최근) 전체적으로 취소 고객이 줄어들었다"고 말해 이러한 추세는 잦아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준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이 홍콩 케세이 퍼시픽 항공 주가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들며 "메르스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 국내 항공주가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연구원은 "메르스 여파로 외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 취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 메르스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등 사태가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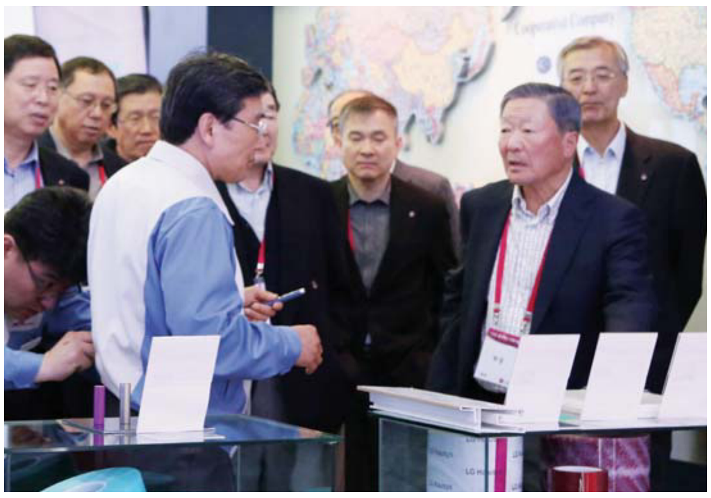
반면 강동진 HMC 투자증권 연구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진정돼도 항공업황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다며 항공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강 연구원은 "메르스라는 일시적인 '공포' 이슈를 제외한 항공업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항공업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항공화물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단거리 노선 경쟁 심화 가능성으로 수익성에 대한 부담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하향 조정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경기자 jkljkl@

구본무 LG회장은 벤처·중기 '키다리 아저씨'

LG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5200건 특허 무료제공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앞장


구본무 LG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4월 LG화학으로부터 특허를 무상 양도받아 2차전지 핵심소재 개발에 성공한 협력사 대표로부터 협력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LG 제공

구본무 LG 회장이 상생협력을 강조하며 정성을 쏟고 있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충북혁신센터)가 주목 받고 있다. 창업활성화,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며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다. 특히 LG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허개방과 사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대학생들의 '키다리 아저씨'로 나서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와 충청북도가 개소한 충북혁신센터는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사업화 전국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기업은 물론 대학생까지 공모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충북혁신센터 특허 전용창구인 '특허 서포트존'을 통해 LG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개방한 5만4000여건의 특허 또는 자체 보유한 특허를 활용해 사업화에 도전할 수 있다.

충북혁신센터는 7월 중 최종 10개의 사업화 아이디어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제품 제작과 실제 제품화를 위한 기술은 물론 최대 2000만원까지 자체 보유 기술의 특허 권리화와 사업 자금 등을 지원한다.

지난 2월 개소한 충북 혁신센터는 뷰티·바이오·에너지 등 충북지역의 특화된 산업 분야에서 LG의 기술과 노하우를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충북 혁신센터는 특허중심의 상생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는 LG 계열사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통해 형성되는 지식재산을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방 특허는 충북 지역의 특화산업 분야인 뷰티, 바이오, 에너지는 물론 전자, 화학, 통신 분야까지 포함한다. LG는 단일 기관이 무료 개방하는 특허 규모 가운데 최대인 5200여건의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충북은 창조경제의 전략 육성 사업 분야 중에서 뷰티·바이오·에너지에 특화된 산업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지역은 화장품 원재료로 이용되는 약용, 천연식물 등이 집중 재배되고 있으며 LG생활건강을 비롯한 100여개 이상의 화장품 업체가 밀집해 전국 화장품 생산량의 27%를 소화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도 태양광, 2차전지, 수처리 등 1400여개의 친환경 기술·설비 기업들이 모여 있다. 특히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혁신센터는 이 같은 산업적, 지리적 특성을 적극 활용해 LG생활건강, LG생명과학, LG화학, LG하우시스 등 관련 산업분야 LG 계열사의 기술과 사업 노하우를 결합한 '시너지'로 충북을 K-뷰티와 K-바이오, 제로에너지의 메카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구 회장을 비롯한 LG 최고경영진 30여명이 충북혁신센터를 찾아 창조경제 활성화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점검하고, 중소·벤처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를 독려했다.

구 회장은 "혁신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생협력을 통해 더 많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실질적 도움을 받아 성장하고 성과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 회장은 올 초 신년사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사랑 받는 기업이 되야 한다"며 "주변의 우수기업들을 발굴하고 협력하여 함께 동반 성장해야 국가 경제가 균형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삼성 '액티브워시' 10만대 돌파… 2분에 1대 꼴 팔렸다

국내 세탁기시장 40%대 점유

삼성전자는 전자동 세탁기 '액티브워시'가 출시 20주 만에 국내 판매 10만대를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4일 출시된 액티브워시가 140일 동안 평균 2분당 1대씩 팔리며 국내 전자동 세탁기 시장에서 40% 후반대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액티브워시'의 판매에 힘입어 2~4월 삼성전자 전자동 세탁기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전자동 세탁기시장도 약 40% 이상 성장했다.



액티브워시는 개수대와 빨래판이 일체형 형태로 된 세탁조 커버 '빌트인 싱크'와 애벌빨래 전용 물분사 시스템인 '워터젯'을 탑재해 찌든 때 제거나 섬세한 의류 세탁 등의 애벌빨래를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

또 애벌빨래 후 세탁물을 아래에 있는 세탁조로 바로 투입해 별도의 이동 없이 세탁 전 과정을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세탁기다.

액티브워시는 지난 2월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북미, 중국, 중남미,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와 땀으로 젖은 세탁물이 많은 여름을 맞아 애벌빨래부터 탈수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액티브워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실 구매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22일 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에서 LG전자는 구글과 함께 '올레드 TV 디지털 마케팅 협력 선포식'을 가졌다. 김기완 LG전자 HE해외영업그룹장(왼쪽)과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오른쪽)가 악수하고있다. /LG전자 제공

LG '올레드 TV' 진정한 가치 알린다

구글과 손잡고 글로벌 공략 강화 마케팅

LG전자는 구글과 손잡고 올레드 TV의 글로벌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마케팅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전날 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에서 '올레드 TV 디지털 마케팅 협력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기완 LG전자 HE해외영업그룹장(부사장),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사장)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LG전자는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올레드 TV의 글로벌 판매를 확대하고 올레드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육성시켜 올레드 TV 대중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이번 구글과의 공동 마케팅 타깃을 글로벌 프리미엄 TV 잠재고객 약 1억 명으로 정했다. LG전자는 소득 수준이 높으면서, 화질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진 고객들에게 더욱 집중해 올레드 TV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방침이다.

LG전자는 구글의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해 인지도 제고, 제품 우수성 인지, 브랜드 호감도 상승, 실질 구매 등 소비자가 올레드 TV를 구매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 맞춰 최적화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 부사장은 "압도적인 화질의 올레드 TV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브랜드 위상을 보다 높여 잠재고객들이 프리미엄 TV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은정기자 eunj71@

대유위니아 스포워셔, 누적 판매 5000대

대유위니아(대표이사 박성관)는 지난 4월말 출시한 위니아 스포워셔의 누적 판매량이 5000대를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판매량은 전국 210여곳의 위니아 전문점과 백화점,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에 물량 공급을 완료한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 동안 집계한 것.

집계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리점과 백화점 판매의 55%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 제거 기능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최연근 대유위니아 마케팅 담당은 "스포워셔 판매량이 당초 예상을 넘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추세"라며 "스포워셔의 블루오션 개척이 성공적인 안착을 할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니아 스포워셔는 가습과 청정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융복합 청정기능을 갖춘 휴대용 에어워셔다. 일반가습기의 입자인 5㎛의 5만분의 1에 해당하는 0.0001㎛ 단위의 마이크로 미세물 입자를 통해 오염물질과 세균을 걸러내고 오직 물로만 청정 가습을 해깨끗하고 촉촉한 공기를 내보낸다.



위니아 스포워셔는 지난달 대한아토피협회로부터 '아토피 안심마크(KAA)'를 획득하기도 했다.

/양성운기자 ysw@

정몽구회장 한보철강 인수 수직계열화 꿈 이뤄

[르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가보니…

1997년 IMF 위기때부터 뚝심 발휘 제철 사업 확장 쇳물부터 완성차 틀어쥐어 車 강판수요 대응 총력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꿈이 녹아있다.

"현대제철의 일관제철 사업은 현대·기아차 그룹의 성장을 뛰어넘는 일이다. 세계 최고급 철강제품 생산을 통해 자동차·조선·기계 등 수요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중대사업이다."

정 회장이 당진 일관제철소 건설현장에서 꺼낸 말이다. 2006년 정 회장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그 쇳물로 자동차용 강판까지 생산하기 위해 일관제철소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 회장이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 농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1995년이다. 취임 후 신년사에서 그는 제철소 사업의 의지를 보였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78년 인천제철을 현대그룹에 편입하며 종합제철소 설립을 선언한지 20년만의 일이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그는 취임과 동시에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그룹 차원의 역량이 집중됐다. 1997년 IMF 외환위기에도 제철사업은 확장을 이어갔다. 2000년 강원산업과 삼미특수강을 차례로 인수했다. 생산능력은 800만t에 육박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정 회장은 철강분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냈다.

2004년엔 충남 당진의 한보철강을 인수했다. 한보철강 인수는 '국내 철강산업 구조조정의 마침표'였다. 정 회장은 일부의 반대를 정면돌파하며 뚝심을 발휘했다. 그 곳에서 열연강판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인수 7개월만의 일이었다. 정 회장의 제철사업 성과가 가시화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정 회장은 2006년 제철 사업분야를 '현대제철'로 명명하고 일관제철소 기공식을 거행했다. '쇳물부터 완성차까지' 프로젝트가 시작된 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2010년 현대제철 당진 일관제철소 제2고로 화입(火入)식에서 화입을 하고 있다. /현대제철 제공

정 회장은 거의 매주 헬기를 타고 충남 당진의 제철소 건설현장으로 날아갔다. 제철소 건설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토요일 임원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제철소 현장을 둘러보고 싶다"며 당진을 찾기도 했다. 당진 건설 현장에 들어간 투자금은 6조원이 넘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뚝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2013년 9월, 당진제철소의 제3고로 건설이 완료됐다. 국내 최초로 민간 자본에 의한 일관제철소였다. 정 회장은 연간 생산량 1200만t 규모의 고로3기를 갖춘 제철소를 손에 쥐게 됐다.

현대차에 활용되는 자동차 강판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다. 2013년 현대제철은 현대하이스코의 냉연부문을 분할 합병했다.

"자동차 경쟁력은 강판에 달려있다" 정 회장이 늘 강조해온 바였다. 자동차 강판을 만들 수 있는 열연강판을 당진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자동차 사업의 '수직계열화'가 완성됐다. 당진제철소에서 만든 열연 강판 600만t 중 70% 상당에 달하는 420만t 가량이 자동차 내외장재다.

7월 1일 현대하이스코와 현대제철의 합병이 완료된다. 이번 합병을 통해 해외 생산 물량이 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강판 조달이 더욱 원활해질 예정이다. 현재 당진제철소는 연간 50만t의 도금설비를 추가 건설 계획 중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늘어나는 자동차 강판 수요에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소리기자 10sound@metroseoul.co.kr



왼쪽부터 쉬허이동 베이징현대 사장, 김장수 주중한국대사,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쑨정차이 충칭시 서기, 황치판 충칭시 시장, 장궁 베이징시 부시장. /현대차 제공

현대차, 中 대륙 공략… 충칭공장 착공

5번째 생산거점 연산 30만대 2017년부터 전략 신차 양산

현대자동차가 중국 충칭시에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중국 대륙에 본격 진출한다.

현대자동차는 23일 중국 충칭시 량장신구 국가경제개발구역에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충칭시 쑨정차이 서기, 김장수 주중 대사, 황치판 충칭시장, 쉬허이 베이징기차 동사장을 비롯 현대차그룹과 충칭시, 베이징기차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칭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현대차의 5번째 중국 생산거점인 충칭공장은 연산 30만대 규모로, 충칭시 량장신구 국가경제개발구역 내 187만㎡의 부지에 29.3만㎡ 규모로 건설된다.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라인은 물론 엔진공장까지 갖춘 종합공장이다.

현대차와 베이징기차가 공동으로 10억 달러를 투자해 2017년 상반기 C급 중국 전략차종과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을 순차적으로 양산한다.

정 부회장은 기공식 인사말에서 "중국 중서부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서 중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충칭시에 신공장을 설립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는 신공장을 통해 서부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여 중국의 동부와 서부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 시장은 "현대차 충칭공장은 중국의 서부대개발, '장강 경제벨트' 건설, 내륙 개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내륙 지역 자동차 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을 활성화하며, 서부지역의 내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정필기자 roman@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공공기여 1조7000억원 제안

132만여명 고용창출 기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놓고 현대차그룹과 서울시의 사전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3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김인수 현대차그룹 신사옥추진사업단장과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만나 사전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11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통한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사업 목적으로 제시한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의 도시계획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통합사옥과 전시컨벤션센터, 공연장,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전망대 등을 짓겠다고 제안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건폐율 38.42%, 용적률 799%을 적용해 연면적 96만㎡에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등으로 쓰일 62층 건물과 통합사옥으로 사용할 115층(최고높이 571m)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공공기여율은 36.75%, 약 1조 7030억원 규모로 제안했다.

현대차그룹은 제안서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설로 11조6000억원, 20년간 운영으로 251조원 등 총 262조 6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32만4000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안한 계획안을 강남구 등 관련부서·기관과 협의하는 한편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양측 협상단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 등을 거쳐 조정할 예정이다. /양소리기자 10sound@

인피니티 'Q50S 에센스 HEV' 출시

5690만원 책정… 하이브리드 정점 올라

인피니티코리아는 Q50S 에센스 하이브리드(HEV)**(사진)**를 국내에서 23일 출시했다.

Q50S 에센스는 인피니티 다이렉트 리스폰스 하이브리드 시스템(IDRH), 다이렉트 어댑티브 스티어링(DAS) 등 최첨단 기술이 탑재됐다.

국내 판매 가격은 5690만원에 책정됐다.

이번에 출시된 Q50S 에센스는 고성능 스포츠카 수준의 강력한 퍼포먼스에 HEV모델 특유의 정숙성과 효율성까지 갖췄다고 인피니티는 전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HEV'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Q70S의 HEV엔진과 차세대 초경량 리튬 이온 배터리가 적용됐다.



/정용기기자 yonggi@

폭스바겐, 티구안 순정액세서리 40% 할인

폭스바겐코리아(사장 토마스 쿨)는 29일부터 9월 25일까지 티구안 순정 액세서리를 40% 할인 판매한다.

이 기간 티구안 고객은 전국 폭스바겐 공식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에서 티구안 순정 액세서리를 4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아웃도어 루프 박스 패키지와 오프로드 스포티 스타일링 패키지다.

루프 박스 패키지에는 루프 박스와 루프랙이 포함됐다.

에어로다이내믹 디자인으로 공기저항을 줄인 루프박스는 주행 중 소음을 감소시켜준다.

언더라이드 가드와 테일게이트, 스테인레스 스틸 마감 머플러 팁으로 구성한 스타일링 패키지는 차체의 장비보호 기능을 한다. /이정필기자



세븐에이트
동성제약
좋은 건...
그냥 좋은 거잖아요?
"전, 오늘 세븐에이트 해요"
세븐에이트 전속모델 | 탤런트 차 화 연
편하고 부담없이 자연스러운 느낌 – 세븐에이트
새치커버는 물론 스타일리시한 헤어컬러까지~ 최신 트렌드에 맞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아름다움을 찾아드립니다.
4호 (자연스런 밤색) 5호 (진한밤색) 6호 (자연스런 갈색) 7호 (자연스런 흑갈색)
스타일에 따라
용도에 맞게 골라 쓰세요
| 세븐에이트 헤어 마스카라 | 세븐에이트 무향료 칼라크림 | 세븐에이트 편한염색
| 세븐에이트 실키 칼라크림 | 세븐에이트 쉬운염색 | 세븐에이트 흑채 커버 스프레이
| 소비자상담실 | 080-547-3571 | 세븐에이트는 가까운 약국, 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결합상품 공짜마케팅, 유선산업 발전 저해"

케이블업계 "동등비율 할인 등 제도개선해야"

"이통3사들의 과장된 결합상품 공짜마케팅때문에 유료방송과 유선통신 산업이 무료화되고 소비자에게도 무료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23일 서울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결합판매 제도개선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은 "통신사의 결합상품 공짜마케팅이 유료방송과 유선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통신업계가 이동통신상품에 가입하면 '방송공짜', '인터넷공짜'를 내세우는 허위, 과장 마케팅이 계속 성행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결합상품 구성별 '동등비율 할인'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등비율 할인으로 결합상품이 주는 혜택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자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협회에서 제도화를 주장하는 동등비율 할인은 무선·유선전화·인터넷의 결합 할인을 상품별 할인율을 적용해 구현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에 이통사는 각 상품별로 할인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에서 전액 할인을 해 마치 '공짜'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도록 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이통사들의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해진 2007년부터 37.8%에 달하던 케이블TV사업자의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2013년 17.9%로 떨어졌다. 반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이 2013년 82.1%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포함한 유료방송 결합상품 비중은 2011년 11.5%에서 2014년 36.5%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두현 케이블TV협회 회장은 이러한 통신사업자 결합상품의 시장 점유율의 급작스러운 증가를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이동통신 결합상품 대응이 어려운 사업자들은 극심한 점유율 감소를 겪거나 퇴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회장은 "더 큰 문제는 방송콘텐츠 사업자와 수익을 배분하는 유료방송 산업 구조상 '방송공짜' 마케팅은 콘텐츠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결합판매 제도개선 기자간담회'에 윤두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김정수 사무총장(오른쪽에서 첫번째) 등 관계 당사자가 참여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23일 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삼다홀에서 열린 지역에너지 절약 융·복합사업 추진 협약 체결식에 조승원 SK텔레콤 솔루션영업2본부장(왼쪽)과 박홍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지역에너지 절약 융·복합 사업 추진

SKT-제주도 협력 MOU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도지사 원희룡)와 지역에너지 절약 융·복합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SK텔레콤과 제주도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에너지기술(ET)간의 융·복합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수요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지능형 디밍 시스템 설치와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이다. 7월부터 제주시 가로등 교체를 시작으로 서귀포시 및 각 읍·면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2015 지역에너지 절약 융·복합 사업' 추진과 관련해 SK텔레콤과 제주도가 공동으로 제출한 컨소시엄 과제를 최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이후 양사는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지능형 디밍 시스템은 시간대별·노선별 교통 통계를 반영해 가로등 전기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교체되는 LED 가로등은 해풍에 의한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재질의 배광 렌즈를 탑재했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제주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 규정 준수와 함께 '공공부문 2017년 에너지 수요 전망 대비 15% 절감'이라는 에너지 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문경기자

"기지국간 신호 품질 저하 해결"

SKT-에릭슨, 5G 핵심기술 '초저간섭 스몰셀' 시연 성공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과 통신 기술·서비스 기업 에릭슨(CEO 한스 베스트베리)은 22일(현지시각) 스웨덴 스톡홀름 에릭슨 본사에서 5G 핵심기술인 '초저(低)간섭 스몰셀' 시연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시연 성공으로 기존 네트워크 대비 최대 215% 속도 향상 효과를 검증했다. 5G 네트워크에 필수 해결 과제인 '다수의 스몰셀 도입에 따른 기지국 간 간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했다. 기존 5G 선행 기술들이 LTE 기술을 진화시키는 기술이었던 반면 초저간섭 스몰셀 기술은 오직 5G 네트워크에서 구현될 혁신적인 기술이다.



SK텔레콤과 에릭슨 양사의 구성원들이 5G 신기술 '초저간섭 스몰셀'을 시연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스몰셀은 수백 미터 정도의 운용 범위를 갖는 저전력 무선 접속 기지국이다. 네트워크 운용 범위(셀 크기)를 줄임으로써 통신 품질 저하와 음영 지역 발생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5G 시대 고품질 콘텐츠를 초고속·초저지연으로 고객에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현재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촘촘한 5G 기지국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지국을 많이 설치할수록 네트워크 제어용으로 할당된 무선 신호 간 간섭이 심해져 단말의 신호 전송 품질 저하 문제가 나타난다.

SK텔레콤과 에릭슨은 '기지국간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네트워크와는 다른 5G 전용 무선 데이터 전송 포맷을 개발하고 별도의 기지국 제어 신호를 설계했다. /정문경기자

KT, 제5회 올레 국제 스마트폰영화제 출품작 접수

이동통신 사업자 KT가 여는 올레 국제 스마트폰영화제가 다음달 1일부터 출품작을 접수한다.

KT(회장 황창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영화제인 '제5회 올레 국제스마트폰영화제'를 오는 9월 9일에 개막하고 다음달 1일부터 8월 17일까지 출품작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영화제 출발을 알리는 쇼케이스를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이날 개최했다.

올해 영화제는 '꺼내라 기가(GiGA)찬 상상'이라는 슬로건 하에 멜로, 드라마, 코미디, 액션 등 장르를 불문하고 기발한 상상력이 가득 찬 스마트폰 영화 모두를 다룰 예정이다. 기존 '10분 부문'과 '1분 부문'을 유지하되 50분 이상의 장편 부문을 신설했다.

국내 영화제 본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시나리오 공모를 받은 후 심사를 통해 최대 3명까지 선발해 총 1000만원까지 스마트폰 영화 제작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영화제 출품은 올레국제스마트폰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 가능하다. 예심과 본심을 거쳐 9월 9일 시상식을 통해 수상작이 발표된다. 총 상금 규모는 5000만원 상당이며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화제 수상작들은 영화제 홈페이지, 올레tv 등을 통해 9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신뢰 잃은 ‘건기식’ 제품 심사 강화해야”

전문가들 “사후관리·원료 안전성 평가 강화를”
식약처, 원료 진위 판별검사 등 의무화 추진

‘가짜 백수오’ 사태로 추락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근거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고 광고 심의를 강화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23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신뢰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다.

이 토론회에서 정명준 쎌바이오텍 대표는 “개별인정형 제품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큼 기능성에 대해 광고 문구에 지나친 표현을 하는 경우가 고시형 제품보다 많고 이 때문인지 개별인정형의 기능성이 고시형보다 나을 것으로 여기는 소비자가 수두룩하다”며 “개별인정형 제품에 대한 광고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건기식의 원료는 백수오·헛개나무 등 최근 새롭게 효능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과 홍삼·비타민·프로바이오틱스 등 이미 기능성이 충분히 입증된 고시형으로 분류된다. 정 대표는 “가짜 백수오처럼 건기식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식약처가 개별인정형 제품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며 “유대교의 코셔와 무슬림의 할랄이 사후관리를 통해 일정 수준에 미달한 업소에 대해 인정 취소를 하듯이 개별인정형 제품에 대해선 인정 갱신 제도 도입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가짜 백수오’사태처럼 원재료를 값싼 가짜 원료로 대체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는 등 제품의 표준화(원재료·가공공정 관리)에 힘써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관련 업계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안전성 문제에 집중해 표준화를 등한시했고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정부와 관련 업계가 제품의 기능성·안전성 못지않게 표준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건기식 원료의 이력추적제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가짜 백수오 사태로 땅에 떨어진 건기식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안전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능성 재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의 백수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료 진위 판별검사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보고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양창숙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이 백수오 사건을 불렀다”며 “식약처가 그동안 최종 생산 제품 중심으로 관리해오던 것을 벗어나 원료단계부터의 관리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회장 박태균)이 주관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다이소, 국내 진출 18년만에 1000호점 달성

하루평균 방문자수 50만명
고품질·균일가 정책 지킬것

다이소(회장 박정부)가 첫 매장 오픈 후 18년 만에 1000호점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이소는 1997년 서울 천호동에 아스코 이븐프라자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2001년 100호점, 2009년 500호점을 오픈했다. 이후 1년에 100호점씩 증가해 이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1000호점인 북수원점을 오픈하기에 이르렀다.

다이소는 2015년 6월 기준으로 직영점 434개, 가맹점 330개, 유통점 236개를 운영 중이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 전국 매장 중 가장 높은 비율인 45.6%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뒤를 이어 영남(경북, 경남)권 매장이 전체의 23.3% 수준이다.

다이소의 연간 제품 총 판매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억 9000만개다. 이는 하루 239만개로, 월 7300만개 제품이 판매된 것.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50만명으로, 1년에 약 1억8000만명의 고객이 다이소 매장을 찾고 있는 셈이다.

다이소 제품 평균 판매가격인 1200원을 기준으로, 국민 한 사람이 약 17개의 다이소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아성산업 안웅걸 이사는



“다이소가 18년 만에 1000호점을 오픈해 대한민국 대표 균일가 생활용품 숍으로서 도약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품질·균일가 정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만족감을 주는 생활용품 기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minus@



‘여름휴가 준비하세요’ 23일 서울 롯데 빅마켓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여행용 캐리어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의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롯데 빅마켓은 오는 7월 말까지 ‘여행용 캐리어’를 시중가 대비 3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연합뉴스

친환경·유통기한 속인 백화점·대형마트 12곳 적발

서울시, 축산코너 기획 점검

서울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축산코너 32곳의 위생을 점검한 결과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축산물 보존 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위생 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집중 점검 분야는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판매장 위생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와규(일본산 품종)·친환경 등 사실과 다른 표시(3곳), 위생상태 불량(3곳), 식육의 종류·등급·보관방법 등의 표시사항 미표시(3곳),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2곳) 등이다.



가) C마트 00점 (와규)



나) D마트 0000점 (무항생제)

서울의 L마트의 경우 ‘친환경’이 아닌 제품에 ‘친환경’ 표시를 해 경고를 받았으며 H마트는 위생상태 불량으로 경고와 함께 과태료 30만원을 처분받았다.

H마트의 한 지점은 일본 육우 품종인 ‘와규’가 아닌 제품에 ‘와규’라고 표시해 경고와 과태료 4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한 L마트의 한 지점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기획점검과 병행 판매 제품 총 116건을 구입 미생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일반세균 수 권장기준 초과제품 48건(기준 초과율 41.4%)을 발견됐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2곳에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서울시는 대형유통업체와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하고, 보다 강화된 서울시만의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 시민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 ‘밴플리트 상’ 수상

김호연(61·사진) 전 빙그레 회장이 한·미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2015 밴 플리트(Van Fleet)상’을 수상했다.

23일 빙그레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 전 회장을 대신해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 대사가 수상했다.



회사 측은 김 전 회장은 메르스 극복을 위해 전 국가적, 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보라기자 bora6693@

G마켓·옥션,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오픈마켓 G마켓 -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대표 변광윤)가 23일 서울시 강남구 본사에서 전라남도와 국제농업박람회 온라인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10월15일부터 11월1일까지 나주에서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9월 중에는 G마켓과 옥션에 박람회 홍보관을 개설하고 박람회에 참가하는 대표 농·특산물을 선보일 계획이다. G마켓과 옥션을 통해 박람회 입장권도 판매한다.

이베이코리아는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전라남도의 숨은 명소를 발굴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와 판매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여름 제철 과일로 더위 날리세요" 플러스(대표 도성환)가 25일 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140개 점포에서 '여름철 과일 기획전'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남아공자몽 1개를 1000원, 망소스틴 1개 1500원, 바나나 2.1kg 4380원, 천도복숭아 1kg 4800원, 자두 1.2kg 5000원, 고당도 흑피·씨없는 수박 7~8kg를 1만3900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백수오 뺀 新 백세주 출시

국순당, 새 레시피 개발
인삼 등 12가지 약재 사용
하반기 매출 70억원 목표



국순당(대표 배중호)이 새로운 레시피로 만든 '백세주'를 선보였다.

국순당은 23일 서울 청진동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새로운 약재와 레시피로 빚은 백세주를 출시하고 시음회를 열었다. 앞서 국순당은 지난 달 백세주의 원료에서 가짜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 전부를 회수했다.

1992년 출시된 백세주는 전성기 시절 연 매출 1300억원이 넘는 인기 상품으로 국순당 매출의 80%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은 180억원으로 줄었고 국순당 실적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배중호 국순당 대표는 "가짜 백수오로 인해 백세주 제품을 회수하기는 했지만 이전부터 현재의 시장 환경에 맞춰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해왔다"며 "새롭게 출시되는 백세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백세주는 기존 함유 약재 중 홍삼과 진피·수국·백하수오를 빼고 오미자·맥문동·인삼·구기자·구기엽·산수유·산약·산사자·건강·감초·황기·오가피 등의 12가지 약재로 만들었다.

알코올 도수 13%로 기존 12.5%에서 0.5%를 높였지만 오미자의 특유의 오미와 인삼의 쌉싸름한 맛 그리고 감초의 단맛이 조화를 이뤄 중후하면서도 신맛, 단맛 등의 복합적인 맛을 냈다.

술빚는 방법은 기존 백세주의 제법을 계승해 생쌀을 가루내 술을 담는 국순당의 특허 기술인 생쌀발효법으로 빚었다.

생쌀발효법은 높은 열을 가하지 않고 가루 낸 생쌀과 상온의 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주조법으로 영양소 파괴도 적을 뿐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다량 함유돼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병 디자인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백세주가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시절의 복고적인 느낌을 살렸다. 하단부가 잘록한 부드러운 곡선의 반투명병을 다시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강조했다.

가격은 종전과 동일하며 대형할인매장에서 375ml 3300원에 판매된다. 국순당은 백세주 올 하반기 매출 목표를 70억원으로 세웠다.

배 대표는 "20년간 연구한 레시피 노하우를 담아 새로운 백세주를 선보인다"며 "좋은 우리 술들이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산소음료 '파워오투 아이스베리'

농심(사장 박준)은 1급수의 약 6배에 달하는 산소가 함유된 '파워오투 아이스베리'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은 알프스산맥 북측 기슭에서 취수한 맑고 깨끗한 물에 달콤상큼한 블루베리향을 더했다. 50ppm의 산소와 6종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 체내에 산소를 빠르게 공급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파워오투 아이스베리는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편의점 기준 1900원이다.

/김보라기자 bora6693@

탄산 첨가한 '보성녹차 스파클링' 출시



동원F&B(대표 박성칠)는 보성녹차의 농축액과 탄산을 담은 스파클링 차음료 '보성녹차 스파클링'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은 보성녹차에 탄산을 담은 새로운 타입의 스파클링 차음료다. 항산화에 효과적인 카테킨과 비타민C 등 다양한 기능성 녹차 성분이 풍부하고 카페인과 색소를 첨가하지않아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한 음료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보성녹차 스파클링은 또 녹차 고유의 은은한 향과 풍미는 살리고 상큼하고 달콤한 유자를 첨가했다. 가격은 1200원이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불황에 '멀티형 화장품' 출시 봇물

합리적 소비트랜드 겨냥
다양한 활용성이 장점

화장품 업계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멀티형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립스틱이면서 블러셔처럼 활용할 수 있는 식으로 합리적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제격이다.

참존이 이달 출시한 탠저-리얼듀얼비타 크림은 투명한 수분 젤과 크림이 섞여있는 듀얼 제형의 크림이다. 산뜻한 케어를 원할 때는 젤의 비중을 높게 해 섞어주고 잠들기 전이나 영양감 넘치는 케어를 원할 때는 크림의 비중을 높여 섞어주면 된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올인원 듀얼 스트레치 마스카라'는 볼륨과 컬링 효과의 익스트림 브러시와 가늘고 촘촘한 스키니 브러시가 양쪽에 달려 있는 제품이다.

익스트림 브러시는 늘어나는 마스카라액이 속눈썹을 길게 만들어주며, 형상을 기억하는 셀룰로오스 파우더가 풍성하게 유지시켜 준다. 직경 2㎜의 스키니 브러시가 있어 일반 브러시가 닿기 어려운 눈앞머리와 눈꼬리까지 꼼꼼하게 바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에스쁘아도 아이 펜슬 8종으로 구성된 '브라운아이드 미'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아이 메이크업 용도에 따라 컨실러·하이라이터·섀도우·라이너 등 활용 폭이 넓다.



업계 관계자는 "합리적 소비 트렌드에 따라 멀티형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며 "비싸냐 저렴하냐를 떠나서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단계별 주방 세제 '순샘 셰프의 선택'



애경(대표 고광현)의 프리미엄 주방세제 브랜드 순샘이 설거지의 단계별 전용 주방세제인 '셰프의 선택'을 23일 출시했다.

신상품은 '조리 중 간편 설거지'와 '마무리 전용 설거지' 2종이다.

'조리 중 간편 설거지'는 음식 조리 중 냄새와 세균이 걱정되는 주방 도구에 바로 뿌려 쓰는 스프레이 타입의 주방세제다. 발효 주정과 와인 식초 성분이 오염과 냄새뿐만 아니라 물때 제거력까지 강화시켜줬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자몽에이슬' 출시 하루만에 115만병 팔렸다

출시 첫 주말 전 물량 소진
SNS 등 시음 후기 잇따라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과즙 소주 '자몽에이슬'이 출시 하루 만에 115만 병이 판매됐다고 23일 밝혔다.

자몽에이슬은 지난 19일부터 강남역·홍대·가로수길 등 주요 음식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출시 이후 첫 주말이 지나면서 대다수 업소에서 출시 물량이 모두 판매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온라인 상에서도 소비자들의 시음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출시 이후 올라온 자몽에이슬 관련 블로그 게시물이 약 1000건에 달했으며 출시를 알리는 페이스북의 게시물에는 '좋아요'가 4만 2000건에 이른다.

자몽에이슬은 참이슬의 깨끗함에 자몽 본연의 맛을 조화롭게 살린 13.0도의 과일리큐르 제품이다. 하이트진로는 수도권 지역 주요 음식점에 우선적으로 출시했으며 채널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과일리큐르 시장으로의 본격진출을 계기로 소비자 니즈에 부응하는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나가겠다"며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우수한 양조기술과 제품개발력을 바탕으로 시장 내 우위를 점하고 시장을 재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당 줄이고 유산균 강화한 '쾌변 요구르트'



롯데푸드(대표 이영호)의 파스퇴르는 '쾌변' 요구르트 출시 10년을 맞아 업그레이드 쾌변을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최대 33% 낮추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기존 4종에서 11종으로 강화했다. 패키지도 보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변경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허리·목 디스크, 고주파로 수술 없이 치료

강남초이스병원

연예인도 찾는 명품 치료술 상업적 홍보모델 안쓰고도 입소문 만으로 유명세 떨쳐



개그맨 정준하씨가 급성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지난 5월 강남초이스병원에서 무통증 고주파디스크치료술을 받았다.

인기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멤버인 개그맨 정준하씨가 급성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지난 5월 28일 관악구에 위치한 강남 초이스 병원에서 특수 내시경을 이용한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받았다.

강남초이스병원에 따르면 정준하씨는 당시 2주전 발생한 갑작스러운 요통으로 침을 맞은 후 1주일간의 해외 촬영중에 갑자기 악화된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잠도 거의 못자고 견디다 귀국하자마자 병원을 찾았다. 정준하씨의 상태는 응급으로 촬영한 요추 MRI상 급성 제 5 요추 –제 1 천추간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으로 터진 추간판이 아래로 흘러내려 심하게 신경을 압박해 정상 보행하기 힘들 정도로 심했다.

담당 주치의인 조성태 원장은 "강남 초이스병원에서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완치시켰던 특수 내시경을 이용한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로 국소 마취하에 15분정도 시술을 해 튀어나온 디스크를 집어넣고 수축시켜 제자리로 밀어넣었다. 터진 추간판은 신경치료로 동시에 치료해 다리 통증이 즉시 사라지면서 깨끗이 완치돼 당일 퇴원했다"고 밝혔다.

조성태 원장은 "정준하씨의 시술은 통증없이 편하게 잘 치료 됐으며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한 증상이었으나, 고주파 치료후 통증이 사라져서 매우 만족한 상태로 귀가 했다. 시술 이후 직후 방송에 출현 하는 등 향후 방송 활동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준하씨 사례처럼 5년전부터 강남 초이스 병원에서 국내 최초로시행했던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 또는 고주파 수핵감압술은 일반적인 고주파 열 치료와는 차원이 다른 진화된 치료법이다.

그 동안의 수많은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특수 신경 치료 기법을 같이 사용해 고주파 열 치료술은 치료가 힘든 말기 디스크 질환 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또는 디스크 동반된 협착증까지 치료 영역을 넓혀 획기적인 비수술 치료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강남 초이스 병원은 스타들을 상업적 광고 홍보모델로 쓰지 않고 실제로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치료·시술 하고, 연예인 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 선수들이 찾으면서 유명세를 얻은 병원이다.

원조 아이돌 여가수면서 요즘 한창 방송 활동중인 원로 가수인 장미화씨 뿐만 아니라 가수 휘성, 런닝맨의 가수 김종국씨등 4명의 멤버들이 비슷한 증상인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고생하다가 고주파 디스크 시술을 받은 후 증상이 말끔히 해소 돼 현재 방송 활동을 무리 없이 잘하고 있다

한편 강남초이스병원은 최근 메르스에 대한 감염방지 및 예방에 최대의 안전병원을 만들고자 매일 병원 소독 및 진료 환자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시키는 등 내원환자와 시술환자들에게 믿고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또한 5년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 또는 고주파 수핵감압술을 시술하는 병원으로 유명하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미디어 현장배송… 안전한 사업장 만드세요"

안전보건공단

온라인서 보건자료 신청 현장 보급 시스템 도입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포스터나 스티커 등 안전보건자료를 손쉽게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자료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제공받을 수 있는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22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자료신청의 편리함과 정확하고 신속한 배송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재해예방 포스터나 경고표지 등 안전보건표지 스티커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공단 홈페이지(http://kosha.or.kr) 초기화면의 '미디어 현장배송'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이용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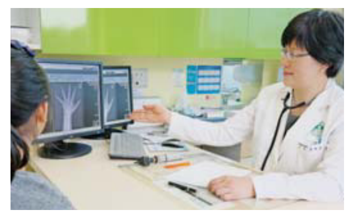
자료구매 비용은 무료이며, 택배 비용만 신청자가 부담하면 된다. 택배 비용은 포스터 20부 단위의 1박스 기준으로 약 3000원이다.

공단은 특정사업장의 자료 독점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 당 신청을 1회 40부로 제한하고 한달에 모두 80부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현명기자 hmbok@

여름방학, 성조숙증·저신장증 검사 적기

이대목동병원

신체·정신 성장 '균형' 강조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혜순 교수가 성조숙증 환아에게 뼈나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녀들의 여름방학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름방학은 그간 소홀했거나 부족한 공부를 하기에 좋은 시기이자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성장 상태를 관찰해 볼 수 있는 적기이기도 하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사춘기 발달은 아이들의 신체와 정신의 균형 있는 성장을 방해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부모들은 자녀의 신체 변화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성조숙증으로 병원을 찾은 이들이 2006년 2만1712명에서 2013년 6만6395명으로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혜순 교수는 "같은 나이라도 신체적 성장 발달 속도와 시기가 아이에 따라 다르고 특히 의학적 저신장증의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해 전문의의 정확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치선기자

강강술래 "보양식 먹고 무더위 이기자"

한우사골곰탕 1+1 이벤트 육포·캠핑세트 최대 50% ↓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기력보충에 좋은 보양식 한우사골곰탕과 나들이에 좋은 포장 상품을 이달 30일까지 파격 할인판매한다.

전 매장에서는 100% 한우로 우려낸 중용량 곰탕(500㎖·2팩·5000원)을 한 팩 사면 한 팩을 더 준다.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선 갈비맛 쇠고기육포 박스(10봉)를 50% 할인된 3만원에 판매한다.

또 한우불고기(500g)와 한돈양념(500g), 돼지양념(750g), 술래양념(520g)으로 구성된 캠핑세트도 36% 할인된 6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한편 강강술래는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이벤트에 신청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광복 70주년 기념 대형 창작 뮤지컬 '아리랑' 공연 티켓(1인2매)을 선물한다.

작가 조정래의 대하소설을 뮤지컬화 한 작품으로 일제강점기 파란의 시대를 살아냈던 민초들의 삶과 사랑, 한민족의 저항과 투쟁 정신을 담았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립톤 아이스티 마시고 '서든어택' 즐긴다

롯데칠성음료

9월 30일까지 아이템 증정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9월30일까지 국내 RTD(Ready to Drink) 홍차 브랜드 립톤 아이스티 구매 시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아이템을 100%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여름 인기 제품인 립톤 아이스티 붐업 조성과 함께 온라인 FPS(1인칭 슈팅)게임인 서든어택 게이머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전국 PC방과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서든어택 캐릭터가 그려진 립톤 아이스티 355㎖ 캔을 구매하고 뚜껑 안쪽 8자리 코드를 서든어택 홈페이지(sa.nexon.com)에 접속해 입력하면 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에게는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키니 캐릭터 또는 ISK(무한총알과 소음기·칼 기능)등급의 인기 주무기 중 1가지를 무작위로 증정한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star bag



첫 스크린 연기 도전

모델 **장윤주(사진 오른쪽)**가 내달 5일 개봉하는 영화 '베테랑'으로 첫 스크린 연기에 도전한다. 극중 광역수사대의 홍일점인 미스봉 역을 맡았다. 장윤주는 "부담이 컸지만 류승완 감독님과 배우들을 믿고 처음 영화에 도전하게 됐다"며 "실제 나와 비슷한 점이 많은 캐릭터라 더 잘 표현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새 앨범 커버 첫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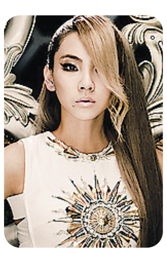
걸그룹 **걸스데이**가 다음달 6일 발표할 정규 2집 커버 중 멤버 민아의 앨범 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민아는 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잘 알려진 배우 올리비아 핫세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데뷔 5주년을 맞이해 정규 2집 앨범 커버를 총 5종으로 제작한다"고 전했다.

2년 반만에 DJ 변신



배우 **최강희**가 26일 KBS 쿨FM '볼륨을 높여라' 스페셜 DJ로 2년 반만에 청취자와 만난다. 이번 최강희의 깜짝 DJ 컴백은 청취자들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 실현됐다. 한편 최강희는 오는 28일 첫 방송되는 케이블 채널 올리브의 로드 리얼리티 프로그램 '느리게 달려야 보이는 것들-맵스'에 출연한다.

英 유력 일간지 호평



투애니원 멤버 **씨엘**이 영국 유력 일간지 더 가디언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더 가디언은 22일(현지시간) 씨엘이 DJ 디플로, 리프 라프, 오지 마코 등과 함께 작업한 노래 '닥터 페퍼(Doctor Pepper)'를 조명하며 "우주적이고 몽상적인 비트를 한껏 뽑냈다"고 호평했다. 씨엘은 미국서 솔로 데뷔를 준비 중이다.

작품 의미에 공감, 욕심은 버렸죠

영화 '연평해전' 김무열



김무열(33)은 지난해 7월 육군에서 전역하자마자 곧 바로 군복을 다시 입었다. 이번에는 육군이 아닌 해군이었다. 전역 후 복귀작으로 선택한 작품이 바로 영화 '연평해전'(감독 김학순)이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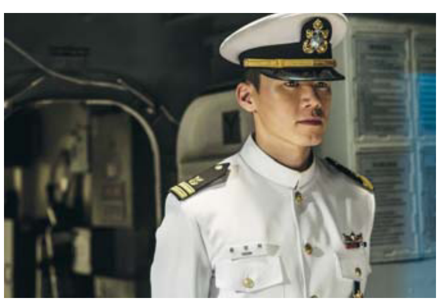
'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당시 터키와의 3·4위전이 펼쳐지던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NLL에서 벌어진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해상 교전을 그린 영화다. 김무열은 북한의 공격 속에서도 참수리 357호와 병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한 정장 윤영하 대위를 연기했다.

군대에서 2년여의 공백기를 갖는 동안 복귀작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어떤 방법과 모습으로 대중 앞에 다시 서야할지 부담이 컸다. 그러나 '연평해전'의 시나리오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고민이 사라졌다.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크게 공감했기 때문이다.

"다들 왜 군대 갔다오자마자 또 군대 이야기냐고 묻더군요(웃음). 하지만 시나리오에서 받은 느낌이 남달랐어요. 이야기 자체만으로 보면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았죠. 이런 비극이 있었지만 잊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군대 이야기로는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귀작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자 캐릭터에 대한 부담이 생겼다. 비극적인 사건으로 희생당한 이의 인생을 연기해야 한다는 부담이었다. 그래서 김무열은 이번 영화에서만큼은 배우로서의 욕심을 버리고자 했다.

"윤영하 대위를 멋있고 따뜻한 분으로 그리고 싶었어요. 사심을 버리고 캐릭터의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전사하는 순간까지도 배를 지키고 대원들을 생각하는 모습이었죠."



전역과 동시에 선택한 복귀작
참수리 357호 윤영하 대위 역
비극적인 실화 배경 부담도
영화일 뿐…정치적 시선은 No

역할이 장교이다 보니 영화 속에서 유난히 혼자 등장하는 장면이 많았다. 평소 촬영장에서 '구석을 찾아' 혼자 있는 편이지만 이번 현장에서만큼은 같이 연기하는 배우들과 어울리려고 했다. 김무열은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조금 더 외향적이 됐다"며 웃었다.

'연평해전'에서 정치적인 색깔을 찾는 사람도 있다. 해전 발생 당시 월드컵 결승전 참관을 위해 일본을 찾았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뉴스가 영화 말미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무열은 "'연평해전'은 실제로 있었던 비극을 기억하자는 영화일 뿐"이라며 정치적인 시선에 선을 그었다. 그는 "논란이 된 장면도 감독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흘러간다'는 의미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연평해전' 촬영을 마친 뒤 김무열은 뮤지컬 '킨키 부츠'로 대중과 먼저 만났다. 그리고 지금은 OCN 주말드라마 '아름다운 나의 신부'에 출연 중이다. 그 사이 오랜 연인인 윤승아와 결혼도 했다. 그는 "결혼을 하니 안정감이 생겼다. 예전보다 확실히 편해졌다"고 결혼 이후의 심정 변화를 전했다.

드라마에서도 무게감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다. 지금 김무열이 하고 싶은 장르는 코미디다. "웃기는데 웃긴 것 같지 않고 슬픈데 슬픈 것 같지 않은 걸 선호해요. 억지로 웃기는 코미디가 아니라 상황 때문에 웃긴 코미디요. '구타유발자들' 같은 영화라고 할까요? (웃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웹드라마 ★들이 몰려온다

남규리·김새론·정일우·유노윤호 등 연이어 출연

온라인을 플랫폼으로 삼은 웹드라마가 방송가의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스타 배우들도 출연을 확정하며 드라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배우 남규리와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페이는 한중 합작 웹드라마 '스완'에 출연한다. 웹드라마 '연애세포'를 기획하고 '인형의 집'을 만든 드라마앤 주식회사가 제작하는 드라마다.

중국의 천재 성형외과 의사 리우베이치와 그의 전처인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 김민서가 공동으로 뷰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남규리가 김민서 역을 맡았으며 중국 스타 위샤오통이 리우베이치 역으로 출연한다.

페이는 리우베이치의 보조인 인턴 2년차 우즈 역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연기를 동시에 선보인다. 신예 조민성은 김민서의 곁을 지키는 허당 캐릭터 정수혁을 연기한다. 오는 7월 초 첫 촬영에 들어간다.

아역 배우 김새론도 웹드라마 '우리 별이 되다' 출연을 확정했다. 가수 데뷔를 앞둔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데뷔 첫 무대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과거로 타임슬립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 청춘 로맨스물이다. 김새론은 이들과 얽히는 여주인공 아린을 연기한다. 오는 19일 첫 촬영을 시작해 8월 중 방영 계획이다.

정일우도 6월 말 한중 합작 웹드라마 '아무도 본 적 없는 고품격 짝사랑'(가제) 촬영에 들어간다.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주연을 맡은 16부작 웹드라마 '당신을 주문합니다'도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방영을 시작한다. /장병호기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남규리, 김새론, 정일우, 유노윤호.



반경 17km
세계 최대 87만여평 규모의
고덕 삼성전자 1단계 (2017년 완공예정)
반경 25km
국대 최대 30만여평 LG전자
진위2일반산업단지 (2017년 입주예정)
반경 3km
한중FTA 최대수혜지인 중국 최단거리 평택항
SAMSUNG
SUHD TV
신평택역
달콤한 혜택보다
확실한 입지로
말합니다!
반경 5km
'한국의 홍콩' 이라 불리는 70만여평
현덕지구 (2018년 완공예정)
반경 10km
'서해안의 디즈니랜드' 82만여평
평택호관광단지 (2019년 완공예정)
반경 20km
강남 수서역을 18분대에 연결하는
KTX 신평택역 (2016년 개통예정)
부동산의 투자가치는 그럴듯한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입지와 개발호재에서 찾아야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수익의 안정성은 입지에서 완성된다
탁월한 입지 + 평택하버 라마다앙코르 = 안정된 수익
평택하버 라마다앙코르 호텔
국내 최대 30만여평 LG전자 진위산업단지
25km
세계 최대 87만여평 고덕 삼성전자
17km
한중FTA 최대수혜지인 중국 최단거리 평택항
3km
5km
'한국의 홍콩' 이라 불리는 70만여평 현덕지구
10km
'서해안의 디즈니랜드' 82만여평 평택호 국제 관광단지
20km
강남 수서역을 18분대에 연결하는 KTX 신평택역
BIG OPEN EVENT
※ 본 이벤트 상품들은 조기 소진이 될 수 있습니다.
1
최고급 나고야 도자기세트
(선착순 증정)
신세계 상품권 30만원
(선착순 계약자 분에 한함)
BIG OPEN EVENT
2
신세계 상품권 추첨 이벤트/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일시: 6월 20일 (토) 오후 3시
월수익 82만원
(전용 21㎡ H타입 기준)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
소유 + 이용 + 월세 + 등기분양
15.6% 실투자 수익률
(60% 대출, 4% 금리, VAT 환급 감안시 / 1년 보장)
10년 호텔전문운영사 위탁운영
年 15일 무료숙박 혜택 제공
매봉역 1번출구
평택 하버라마다앙코르 호텔 모델하우스
SK리더스뷰
도곡동포스코트
3호선
매봉터널 사거리
양재전화국 사거리
매봉역 사거리
[총 476실] 50.62㎡~101.24㎡ 총 9개 Type
검색창에 "평택하버 라마다"를 검색하세요
1600-8214
신청방법
청약신청금 : 1백만원/ 계좌 : 100-030-833069 신한은행 / 예금주 : 생보부동산신탁(주)

'최고의 두뇌' 가린다

'더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 27일 첫 방송



치열한 두뇌 게임으로 큰 인기를 얻은 tvN '더 지니어스'가 '그랜드 파이널'이라는 타이틀로 왕중왕전을 벌인다.

'더 지니어스'는 거액의 상금을 놓고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 심리게임을 벌이는 게임 서바이벌 리얼리티쇼다. 2013년 4월 첫 선을 보인 뒤 출연진의 치열한 수 싸움과 반전을 거듭하며 시즌3까지 인기리에 방영됐다. 독창적인 기획력과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아 지난해 네덜란드에 포맷도 수출했다.

23일 CGV 상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시즌1 우승자 홍진호는 "강자들과 붙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가서 즐기고 싶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시즌3 우승자인 장동민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며 "이번에도 내 기량을 원없이 펼쳐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올해 네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더 지니어스'는 '그랜드 파이널'이라는 제목처럼 시즌별 TOP2를 포함해 엄선된 실력 플레이어만이 참여한다. 게임 참가 경험이 있는 플레이어로 구성돼 어느 시즌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다. 27일 오후 9시45분 첫 방송. /하희철기자

하지원, 로코퀸으로 귀환

SBS 새 주말극 '너를 사랑한 시간' 브라운관 복귀

배우 하지원(사진)이 '로코퀸'으로 브라운관에 복귀한다.



하지원은 27일 밤 10시 첫 방송되는 SBS 새 주말극 '너를 사랑한 시간'으로 주말 안방극장을 찾는다.

'너를 사랑한 시간'은 17년 동안 친구로 지내온 서른넷 동갑내기 남녀의 감정을 다루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지내온 오하나(하지원)와 최원(이진욱)이 주인공이다. 각자 진짜 사랑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직감하는 순간 동시에 서로에 대한 애정을 느끼면서 엇갈리는 로맨스를 그린다.

하지원은 23일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지금까지의 작품들 중 실제 모습과 가장 가까운 캐릭터"라며 "현실적이고 여성스러운 인물이다. 옆집 언니 같은 누군가의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이번 작품에서 처음 호흡을 맞추는 이진욱에 대해서는 "기대 이상"이라고 평했다. 하지원은 "리허설부터 잘 맞고 편하다. 정말 17년 지기 친구 같다"며 "실제 촬영할 때 (이진욱의) 눈이 반짝인다.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 이번 드라마에서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원은 출연하는 작품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로코퀸'이라는 수식어도 따라다닌다. 이 같은 비결에 대해 하지원은 "연기할 때 상대 배우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 그 순간 만큼은 정말로 사랑하는 눈빛이다. 시청자들이 그것을 알아주시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원은 끝으로 "작품 출연을 결정했을 때 불안함보다 선택한 작품을 즐기려고 하는 편"이라며 "이번 작품 역시 심장이 뛰고 설레었다. 잠자고 있는 연애세포를 자극해 심장을 뛰게 만들어줄 수 있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시원한 여름 여자들 한 자리에

◆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오후 11시 10분

시원한 여름 여자 특집이다. 아이돌계 원조 베이글녀 시크릿의 전효성, '콜라병 몸매' 씨스타의 소유, 대한민국의 섹시아이콘으로 급부상한 예정화, 원조 섹시 치어리더 김연정이 출연한다. 동안이지만 벌써 치어리더 9년차인 김연정은 인기 개그맨의 은밀한 대쉬를 고백하면서 '태어나서 살 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라는 망언을 남긴다. 소유는 8kg을 감량한 필살 비법을 공개한다.

◆ KBS2 '추적 60분'

오후 11시 10분

삶의 질을 판단하는 척도로 '시간빈곤'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득빈곤만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숨겨진 빈곤층에 대해서 24시간 밀착 취재한다.



◆ JTBC '크라임씬2'

오후 11시

지난 주 '크라임씬 PD 살인사건'에 수사를 위해 특별히 합류한 범죄 수사전문가 표창원 탐정은 기나긴 수사 끝에 피해자의 결정적 사인을 밝혀내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 tvN '고교10대천왕'

오후 11시

국내파와 해외파의 자존심이 걸린 '나의 영어 울렁증 극복기' 승부가 펼쳐진다. 10대 천왕만의 영어 울렁증 극복 비법이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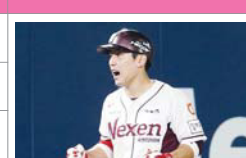
/정리=하희철기자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4일 (수)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68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동생이랑 나랑 (17회)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인순이의 토크 드라마 그대가 꽃	50 오늘부터 사랑해 (58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8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12회)	00 곤 30 EBS 뉴스 50 사선에서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33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비타민	55 딱 너 같은 딸 (28회)	00 SBS 8 뉴스 55 영재발굴단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20 스쿨랜드 (재)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복면검사 (11회)	00 맨도롱 또똣 (13회)	00 가면 (9회)	45 극한 직업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스튜어트 리틀>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6.25 기획 문화빅뱅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30 동행 (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재)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한국영화특선 <공동경비구역 JSA>	30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냉장고를 부탁해 (32회) (재)	40 명단공개 (68회) (재)	30 노 오븐 디저트 (1·2회)	00 <길들지 않은 대륙, 아메리카> 비밀이 숨쉬는 낙원	40 나도 영화감독이다 (2회)	
19시	40 연금복권 520 (208회) 55 JTBC 뉴스룸	40 고성국의 빨간 의자 (53회)	30 TAXI (376회)	00 쇼킹 70억 (24회)		
20시	50 JTBC 뉴스룸	40 강용석의 고소한 19 (138회)	40 올리브쇼 2015 (12회)	00 아프리카 원시문명 대탐험 3부 투르카나의 전설, 엘모로족	00 딥 블루 씨	
21시	40 유자식상팔자 (107회)	40 수요미식회 (22회)	40 오늘 뭐 먹지? (19회)	00 <천혜의 자연, 오스트레일리아> 3부. 웜뱃의 왕국		◆ 프로야구 (18:30)
22시			20 오늘 뭐 먹지? (35회)	00 항공사고 수사대: 에어 크래쉬 (4회)	00 7번방의 선물	SK vs 두산 (SPOTV+) KIA vs NC (MBC SPORTS+)
23시	00 크라임씬 2 (12회)	00 고교10대천왕 (9회)	00 2015 테이스티로드 (22회)	00 <전쟁의 대가들>스탈린그라드전투: 파울루스 vs 츄이코프		넥센 vs 한화 (SKY SPORTS) LG vs KT (SBS SPORTS)
24시	4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스페셜 (20회)	20 강용석의 고소한 19 (138회) (재)	00 한식대첩 3 (5회)	00 서바이벌 알래스카3 (10회)	30 컨트롤	삼성 vs 롯데 (KBS N SPORTS)

타점왕 경쟁… NC 이호준-테임즈 '집안싸움'

3위 박병호와 10타점 이상 차 내며 선두 노려


NC 이호준.


NC 에릭 테임즈. /연합뉴스

이호준(39)과 에릭 테임즈(29)의 타점왕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21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경기에서 테임즈는 홈런을 포함해 4타수 1안타 4타점을 몰아치면서 시즌 71타점을 기록했다. 올시즌 KBO리그에서 가장 먼저 70타점 고지를 넘어섰으며 69타점에 머무른 팀 동료 이호준을 제치고 타점 부문 단독 1위에 올라섰다. 이호준이 잠시 주춤한 사이 무섭게 치고 올라 역전에 성공한 것이다. 이로써 장타율(0.759) 1위에 이어 타점 1위까지 넘볼 수 있게 됐다.

지난달 9일부터 43일 동안이나 타점 1위를 지켜온 이호준은 300홈런을 의식해서인지 시즌 초반 몰아쳤던 페이스가 떨어졌다. 하지만 300홈런을 달성해 짐을 내려놓은데다 고작 2타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언제든지 다시 선두를 빼앗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3위로 이들을 추격하고 있는 넥센의 박병호(29)가 59타점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타점왕 경쟁은 이호준과 테임즈의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 둘은 NC의 타순에서 4번과 5번을 맡고 있어 그야말로 집안싸움이 됐다.

이호준이 이번시즌 타점왕에 오르면 KBO리그 역대 최고령 타점왕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역대 KBO리그 최고령 타점왕은 2005년 현대 외국인 타자로 활약한 래리 서튼이다. 1970년생인 그는 당시 만 35세 나이로 리그 최다 102타점을 올렸다. 국내 타자로는 1986년 해태 김봉연이 만 34세의 나이로 타점왕에 올랐다. 이호준은 만 39세를 훌쩍 넘어섰다. 테임즈 역시 타점왕 타이틀을 차지하면 장타율 1위에 이어 2관왕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제 29세인 그는 자신의 몸값을 높일 절호의 기회다.

같은 팀에서 타점왕 경쟁을 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1986년 해태에서 김봉연(67타점)과 한대화(66타점)가 1타점차로 1~2위가 갈렸고, 1993년 삼성 역시 김성래(91타점)가 팀 동료 양준혁(90타점)을 1타점차로 이겼다.

1997년은 삼성 이승엽(114타점)과 양준혁(98타점)이 같은 팀에서 타점 1~2위를 차지했다. 2010년에도 롯데 이대호(133타점)와 홍성흔(116타점)이 1~2위로 압도적인 타점 레이스를 주도했다. 테임즈와 이호준이 지금 페이스를 이어가면 역대 5번째로 같은 팀에서 타점 1~2위가 나오게 된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성화 주자가 22일 오후 경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해상누각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을 주세요! 자랑으로 드리겠습니다!"

광주 하계U대회

25일 선수단 결단식… 성화 울산 지나 부산 이동

제28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메달 25개 획득, 종합 3위 달성'을 목표로 광주로 향한다.

대한체육회는 21개 종목 516명의 한국 선수단이 오는 25일 오후 4시 서울 올림픽공원 수변무대에서 결단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회 일정을 치른다고 23일 밝혔다.

선발대는 오는 27일, 본단은 다음 달 1일 광주로 출발한다. 광주 하계U대회는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

결단식은 '사랑을 주세요! 자랑으로드리겠습니다!'라는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된다.

한편 광주 하계U대회 성화는 23일 오후 울산시 북구청~명촌교~아산로~염포산터널~울산대교~여천오거리~보람병원입구~남구청~울산시청을 거쳐 부산으로 이동한다.

울산시는 행사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지난 1일 개통한 울산대교를 성화 봉송 구간에 포함했다. 성화는 지난 5월 18일 프랑스 파리와 6월 2일 강화도 마니산에서 각각 채화돼 같은 달 3일 광주에서 합쳐진 뒤 4일부터 전국 순회를 시작했다.

/김민준기자 mjkim@

미국, 콜롬비아 꺾고 8강행

FIFA 여자월드컵

잉글랜드, 노르웨이 제압

미국이 2015 국제축구연맹(FIFA) 캐나다 여자월드컵에서 콜롬비아를 물리치고 8강에 진출했다.

미국은 23일(한국시간) 캐나다 에드먼턴의 커먼웰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앨릭스 모건의 대회 첫 골에 힘입어 콜롬비아에 2-0으로 승리했다.

전반전을 0-0으로 마친 미국은 후반 2분 콜롬비아 골키퍼인 카탈리나 페레스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한 뒤 거세게 밀어붙인 끝에 승리를 거뒀다.

미국은 후반 5분 애비 웜바크가 페널티킥 찬스를 놓쳤다. 하지만 모건이 후반 8분 측면에서 오른발 슛을 때려 선취골을 성공시켰다. 이어 후반 21분 칼리 로이드가 페널티킥으로 추가골을 넣으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미국은 카메룬을 꺾고 올라온 중국과 8강에서 맞붙는다.

잉글랜드는 캐나다 오타와 랜스다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노르웨이에 2-1로 역전승하며 8강에 올랐다.

F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 잉글랜드는 B조 2위 노르웨이를 맞아 전반을 득점 없이 마쳤다. 후반 들어 잉글랜드는 선제골을 허용했다. 후반 9분 노르웨이 솔베이그 걸브랜드슨이 잉글랜드 페널티박스 안에서 헤딩으로 골망을 갈랐다.

하지만 잉글랜드는 후반 16분 스테파니 휴톤이 회심의 동점 헤딩골을 꽂아 넣으며 균형을 맞췄다. 이어 후반 31분 루시 브론즈가 팀 동료 질 스콧과 조디 테일러로 이어진 패스를 골대 구석에 꽂아 넣으며 역전골을 뽑아냈다.

잉글랜드는 남은 시간 노르웨이의 반격을 막으며 승리를 했다. 노르웨이는 조별리그에서 '최강' 독일과 무승부를 기록하며 강호의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잉글랜드에 아쉽게 무릎을 꿇었다.

잉글랜드는 스위스를 꺾고 올라온 홈팀 캐나다와 4강 진출을 위한 일전을 치른다. /장병호기자

◆ 22일 전적

미국2(0-0 2-0)0콜롬비아

잉글랜드2(0-0 2-1)1노르웨이


23일(한국시간) 캐나다 오타와 랜스다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캐나다 여자월드컵 잉글랜드와 노르웨이의 16강전. 이날 경기에서 잉글랜드가 노르웨이에 2-1로 역전승을 거뒀다. /AP 연합뉴스



박세리, 허리부상으로 US여자오픈 불참

한국여자골프의 맏언니 박세리(38·하나금융그룹·사진)가 7월 열리는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 출전하지 않는다.

대회조직위원회는 23일 박세리가 7월 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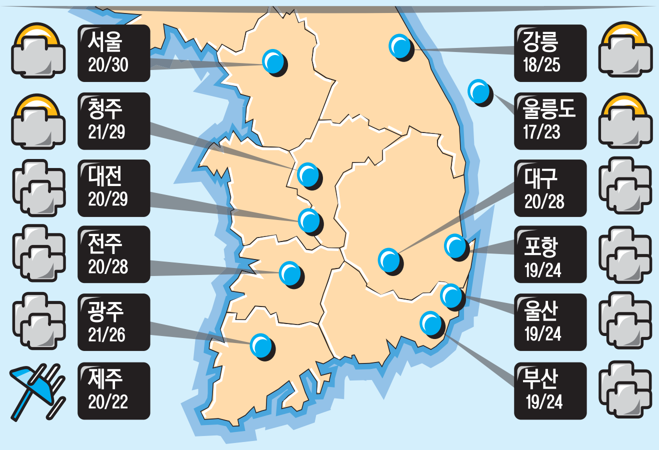
메이저대회에서 5승을 올린 박세리는 최근 LPGA 투어 2개 대회에서도 허리 부상 때문에 기권했다. 박세리가 출전을 포기함에 따라 조지아 홀(잉글랜드)이 US여자오픈에 대신 출전한다.

/김민준기자

날씨

6/24 수 일출시각 05:12 일몰시각 19:5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3		1		6	2	
	1	2	5		4	3	8	
		4	9		7	8		
	3						9	
		8	3		1	5		
	7	9	4		6	1	5	
	8	6		5		2	7	

			5		4			
2	1		7		9		6	3
			6		8			
7			3	9	1			6
	9						8	
1	5						2	8
3		2				9		4
8		9	4		2	6		1

스도쿠 정답

8	6	5	2	9	3	7	4	1
4	9	3	7	1	8	6	2	5
7	1	2	5	6	4	3	8	9
6	5	4	9	2	7	8	1	3
1	3	7	6	8	5	4	9	2
9	2	8	3	4	1	5	6	7
2	7	9	4	3	6	1	5	8
3	8	6	1	5	9	2	7	4
5	4	1	8	7	2	9	3	6

4	3	7	1	2	6	8	9	5
9	8	6	5	3	4	1	7	2
2	1	5	7	8	9	4	6	3
5	4	3	6	7	8	2	1	9
7	2	8	3	9	1	5	4	6
6	9	1	2	4	5	3	8	7
1	5	4	9	6	3	7	2	8
3	6	2	8	1	7	9	5	4
8	7	9	4	5	2	6	3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Bankruptcy Crisis, Trying to be the Amity Force

<백기사하다 망할라>

KCC is on the verge of great loss after they have acquired great portion of Samsung C&T Corporation's share.

KCC has purchased 8,990,000 Samsung C&T Corporation's treasury stocks, which is 75,000won per stock last November.

But Samsung C&T Corporation's share continued to drop. The Samsung C&T Corporation's share was 64,300won by the 22nd of this month.

There are questions being asked whether KCC management has purchased Samsung C&T Corporation's stock, at an excessively high price or not.

If Samsung C&T Corporation and Cheil Industries Inc were to be merged, the joint corporation's stock should be at least 214,285 won in order to get their money worth.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산시키기 위해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본사. /연합뉴스

삼성 측 백기사로 나선 KCC가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취득한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애매한 상황에 처했다.

KCC는 지난 11일 장외 블록딜로 삼성물산 자사주 899만주를 주당 7만5000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후 삼성물산 주가는 하향세를 지속했다. 22일 종가 기준 삼성물산의 주가는 6만4300원이다.

KCC 경영진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삼성물산 자사주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됐을 경우 KCC가 매입한 삼성물산 주식이 본전을 찾으려면 통합법인의 주가는 21만4285원 이상이어야 한다.

PAGODA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딸과 남자친구의 결혼궁합은 어떤가요
겉으로는 덤덤하나 속으로는 상생기운

청사초롱007 여자 86년 2월 12일 양력 10시경
남자 82년 5월 19일 양력

Q 결혼은 궁합이 맞아야 한다고 하여 제 딸과 지금 교제 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을 알려 드립니다. 딸은 1986년 2월 12일 양력 10시/남자 1982년 5월 19일 양력으로 시간은 잘 모르는데 점심때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딸이 해외상사에 다니고 있는데 출장도 잦고 외출 외박도 잦아 빨리 결혼하여 정착 시키고 싶습니다. 언제 결혼을 할 수 있는지요. 현재 교제 하고 있는 남자와는 서로 시큰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맞는 짝이 나타나기 어려우면 적당히 그냥 결혼식을 올리게 하려는데 그래도 궁합을 봐야 하겠기에 여쭙습니다. 말썽이 없을 까요?

A 보편적 궁합이란 두 사람 간의 육체적, 정신적 안정과 조화를 실현하여 결혼하여 가는 여정에서 별일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 논리로 볼 때 궁합이 아주 좋다고 했으나 헤어지는 부부가 있고 나쁘다고 했는데 잘사는 부부가 있어서 궁합을 보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문제는 이를 정확히 해석하면 잘 맞는 것이고 잘못 해석을 하면 맞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두 남녀 간의 연지(年支:띠)를 기준으로 보는 것을 겉 궁합이라 하고 두 사람의 사주 배합에 따라 맞춰보는 것을 속궁합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궁합을 따져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좋은 궁합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궁합 상담 법은 궁합이 좋지 않다고 하면 좋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여 서로 맞추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좋은 기운이 있으면 이것을 통해 서로 상생(相生)하도록 사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는 것입니다. 따님은 '어둠을 밝히는 달 빛'의 형상으로 확신이 있는 명석한 이성을 지녔으며 생일지(生日支:생일)에 귀인(貴人)을 두어 복록과 배우자의 덕이 두텁습니다. 남자는 사주에서 수기(水氣)가 유동(流動)하여 지혜와 영감이 뛰어납니다. 인내력이 있고 관인 대직한 성격으로 하는 일에 성실합니다. 두 사람은 겉보기에는 덤덤한 사이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합을 이루고 있으며 서로 상생해주는 기운을 갖고 있어 어려운 때 상부상조 합니다. 다만 사돈 간에 가풍이 안 맞아 가깝게 지내지 못함이 있는데 결혼 전에 혼수 등의 문제에 시누이가 끼어든다면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24일 (음 5월 9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쥐 **48년생**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60년생** 여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72년생** 오늘 하루는 대체로 원만합니다. **84년생** 술자리를 조심하세요.

소 **49년생** 어렵게 일을 풀어 나가게 됩니다. **61년생**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것입니다. **73년생** 분수에 넘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길합니다. **85년생** 귀한 손님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호랑이 **50년생** 곤경에 빠질수록 도덕적인 행동을 우선으로 하세요. **62년생** 두 마리 토끼는 잡기 어렵습니다. **74년생** 단기간이지만 입원치료도 불사해야 합니다. **86년생** 전업은 길하지 못합니다.

토끼 **51년생** 부지런히 뛰어 다녀야 합니다. **63년생** 한가지 일에 희망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75년생** 칭찬이나 용돈을 받습니다. **87년생**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용 **52년생** 좋은 운은 반드시 찾아 옵니다. **64년생**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76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88년생** 모든 것이 길합니다.

뱀 **53년생** 뜻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5년생**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세요. **77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89년생** 시끄러운 곳에서 스트레스를 푸세요.

말 **54년생** 단순한 놀이에 목숨걸고 달려들지 마세요. **66년생** 거짓말은 신용을 잃게 하는 것이니 삼가하세요. **78년생** 만물엔 이치가 있는 법. **90년생** 순리에 역행하는 생각은 멀리하세요.

양 **55년생** 여행을 떠나세요. **67년생** 동북방이 길방입니다. **79년생**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90년생** 반성하여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원숭이 **56년생**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세요. **68년생**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를 보내세요. **80년생** 사업확장은 금물입니다. **92년생** 친구들에게 희망을 걸지 마세요.

닭 **57년생** 귀인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69년생** 집에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81년생** 음식을 조심하세요. **93년생** 돈내기를 절대 하지마세요.

개 **58년생** 세상과는 거리가 먼 신선의 모습입니다. 70년생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82년생**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94년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돼지 **59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71년생** 불의를 멀리하도록 하세요. **83년생** 여기저기 자랑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95년생**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신경숙 모호한 인터뷰 실망… '도긴개긴'이 차라리 나았다



뉴스룸에서
김 민 준
<문화스포츠부 부장>

1996년 단편 '전설'의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인 23일 표절을 사실상 인정한 신경숙 작가의 표현에 실망감이 든다.

신 작가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의 문장과 '전설'의 문장을 여러 차례 대조해 본 결과 표절이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무리 기억을 뒤져봐도 '우국'을 읽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는 나도 내 기억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15년 전인 2000년에도 같은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우국'을 읽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설' 외에도 '기차는 7시에 떠나네' '작별인사' '엄마를 부탁해' 등 그의 작품 전반에 쏟아지는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도 "어떤 소설을 읽다보면, 어쩌면 이렇게 나랑 생각이 똑같을까 싶은 대목이 나오고 심지어 에피소드도 똑같을 때가 있다"면서 보편적인 생각임을 강조했다.

또 시에서 제목을 따오는 일은 "당시 문단에서 종종 있던 일"이라며 "만약 그게 잘못된 일이었다면, 혹시 섭섭한 마음을 가졌다면 제가 잘못 살아온 것 같다"고 문제의 본질을 회피했다.

차라리 한 코미디 프로에서 유행하는 "도긴개긴" 표현을 써가며 한국 문학계의 권력 담합 구조를 성토하고 반성하는 게 나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한국 문학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형 상업출판사들과 일부 잘 팔리는 작가들의 담합 구조, 상찬만 더하는 비평가들의 기생 구조, 대학의 문예창작과와 각종 문학상 심사위원들 간의 결탁 구조 등을 문제삼고 있다.

상업출판사가 운영하는 문예지를 통해 작가 작품을 게재하고, 주례사 비평으로 포장해 다시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결탁 구조가 온존하는 한, 또 유명 작가들이 신예들의 작품을 마음대로 도용하고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현실의 혁파 없이 한국 문단의 건강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신 작가의 인터뷰가 나오자마자 출판사 창비가 문제가 된 '전설'이 담긴 단행본 '감자 먹는 사람들'의 출고를 즉각 정지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신 작가가 한국을 대표하는 인기작가를 넘어 한국 상업출판사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자신의 어려운 삶을 담담하게 풀어냈던 그의 초기작들이 그리워진다. /문화스포츠부장

2년 늦은 '소수의견'의 개봉을 응원한다



기자 수첩
장 병 호
<문화스포츠부 기자>

극장가의 가장 큰 성수기는 바로 여름 시장인 7월과 8월이다. 한국과 할리우드 할 것 없이 대작들이 앞 다퉈 개봉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소규모의 영화들은 개봉하기가 힘들다. 6월에 유난히 많은 영화들이 몰리는 이유다.

올해 6월에는 무려 80여 편이 극장가에 걸렸거나 걸릴 예정이다. 지난 4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피해 개봉일을 연기했던 작품들이 치열한 여름 시장을 앞두고 대거 개봉했다. 스타 배우가 나오거나 인기 시리즈의 속편이라는 이유로 일찌감치 대중의 관심을 받은 작품이 있는가 하면 완성도를 갖췄음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대중에게 알려지지 못한 작품이 있다.

그중에서도 한 편의 영화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하고 싶다. 25일 개봉하는 '소수의견'이다. 손아람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제작 초기에 용산 철거민 참사를 모티브로 삼은 작품으로 화제를 모았다.

실제 사건이 바탕이 됐지만 영화는 허구의 이야기로 재개발 문제, 나아가 사법계의 어두운 단면에 직격탄을 날린다. 서대문구 아현동 철거촌으로 무대를 바꾼 영화는 철거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의 16세 아들과 의경이 동시에 죽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벌어지는 법적 공방을 다룬다.

윤계상, 유해진, 김옥빈, 이경영, 장광, 김의성, 권해효 등 인기 배우와 연기파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인 영화는 2년 전인 2013년 6월 이미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당초 2014년 개봉 예정이었지만 개봉일이 무작정 미뤄지면서 여러 말이 나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원작자인 손아람 작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급사 CJ E&M이 이재현 회장 구속 이후 개봉을 1년 동안 연기해온 영화 '소수의견'을 결국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폐기처분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제작사 하리마오픽쳐스와 CJ E&M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으로 논란을 무마시켰으나 그럼에도 의혹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영화는 CJ E&M이 아닌 시네마서비스의 배급으로 25일 극장에 걸린다. 지난 18일 언론시사회에서 첫 공개된 영화는 법정 드라마라는 장르적 재미는 물론 한국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주제 의식을 고루 갖춘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다.

극중에서 국가의 편에 서 있는 홍재덕 검사는 "국가는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 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고개를 끄덕이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잔혹한 진실이다. 한국 사법계의 민낯을 고스란히 담은 영화가 만들어진지 2년 만에 개봉한다. 그것은 어쩌면 그만큼 한국사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방증일지 모른다.

국제계약 협상에서 법 논리 활용 중요



김재헌 변호사의
BizLaw

국제계약 협상을 할 때 협상 당사자들이 거래조건을 먼저 협의하고 그 다음 단계로 그 거래 조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 논리를 활용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래조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된다.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거래조건을 먼저 협상하는 것은 기초가 부실한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건물을 짓다가 나중에 기초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건물을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하는 것처럼 법적 검토 없이 합의된 거래조건에 중요한 하자가 있으면 협상을 새로 하여야 하는 수도 있다.

한국의 A사는 미국의 B사와 인수합병(M&A)거래를 진행하면서 의기투합하여 사업을 성장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구체적인 거래조건들을 논의하는 중에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B사는 A사의 대주주가 B사의 이익보호를 위한 보증을 해주고, 동시에 A사가 그 대주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B사에 담보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A사와 그 대주주는 B사의 이 제안이 부담스러워서 일단 거부하였다. 그런데 B사의 신뢰와 권리 보호를 위해서 달리 제공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 딱히 거부할 만한 논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수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A사는 돌파구가 필요했다. A사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A사가 A사의 대주주의 의무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배임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B사로서도 권리확보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래 구조는 B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B사로서도 자신의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니 A사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제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거래구조를 찾기로 하였다. 만약 A사와 B사가 거래조건을 다 합의해 놓고서 나중에 법적 검토를 받았더라면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협상을 할 때 이런 법 논리를 잘 활용하게 되면 협상 상대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거래구조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재헌 변호사(법무법인 천고)

깨어있는 나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누군가의 쇼핑을 돕는 일은 어렵다. 상대방의 취향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어울리는 제안이 수용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제3자적 판단, 즉 객관적 시각에서 상품의 좋고 나쁨 혹은 어울리고 어울리지 않고를 얘기하는 게 수용되기 힘들다는 얘기다. 당사자 눈에는 절대 차지 않는다. 이럴 때의 대부분은 '좋아 보이는데 나한테 안 어울려'라고 변명인지 설명인지 사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뉘앙스의 말로 얘기가 끝나기 마련이다. 도우미 입장에서는 '왜 끌고 다니는 거니' 싶다.

구매행위에 대한 동반활동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대부분이다. 특히 여자가 구매자고 남자가 동반자라면 이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여자의 경우 '취향'으로 대변되는 강한 주장이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어지간한 남자가 여자의 구매 취향을 이해해서 그 이상의 제안을 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호기심 유전자'는 매우 그럴 듯 해 보인다. 뭔가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다른 사람보다 앞서 가는 사람의 상징처럼 대두되고 있다. 그렇기도 하다. 호기심이 강한 사람은 누군가의 제안이나 추천에 관대하다. 일단 수용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이런 사람들은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 어떤 물건이건 일정 시간 이상을 사용해야 자기 것으로 흡수되기 마련인데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싫증을 잘 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거나 판단한 일부를 전체로 둔갑시켜 믿는 오류를 범한다.

학계에 따르면 호기심은 뇌의 각성이 부족한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신이 멍할 때 커피를 마셔서 뇌를 각성시키는 것처럼 평소의 뇌 상태가 다른 사람보다 덜 각성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각성시킬 뭔가를 찾아낸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항상 깨어있기를 원한다는 것인데, 이게 핵심이다. '깨어있는 나'가 되려는 본능. 누구나 그 본능을 추구하다. 쇼핑을 통해서든,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든, 정치적 이슈를 통해서든. 그러니 상대방의 반응이 달갑지 않다 해도 포기하지 말자. 서로를 깨워주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다.

인사

■ 미래창조과학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조경식
■ 경기도 부천시
△4급 승진 ▷허 모, 안정민(이상 지방서기관), 이봉호, 홍석남(이상 지방기술서기관) △5급 승진 ▷안치완, 나기출, 조효준, 이태훈, 구자중, 유재균, 강동숙, 정애경, 이상열
■ 대전시교육청
△행정 3급 승진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 △행정 3급 공로연수 ▷대전평생학습관장 강경섭 △행정 3급 정년퇴직 ▷행정국장 이병기 ▷기획조정관 백영배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행정 4급 전보 ▷한밭교육박물관장 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 총무부장 황금숙 △행정 4급 승진 ▷감사관 전성규 ▷감사관 감사총괄담당 김선용 ▷대전교육정보원 행정정보부장 곽석환 △행정 4급 공로연수 ▷한밭교육박물관장 한춘수 ▷대전교육정보원 총무부장 염성철
■ 경남도교육청
△행정 4급 ▷낙동강학생교육원 전석자 ▷경남도교육종합복지관장 이민수 ▷경남도교육연수원 손병우 ▷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박노근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정책기획관실(경남도 파견) 장의경 ▷감사관실 백판규 ▷경남도과학교육원 이종원

HNT 하나투어리스트

하나투어리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특가 상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hanatourist.com

허니문 주말상담회



예비 신랑♥신부님
주말에도
허니문 상담 받으세요!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픈**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빌딩 2층 (주)하나투어리스트



상담회 특전 | 허니문 주말 상담회에 참여하는 신랑 신부님께 드리는 특전

❶ 현장 예약시 **하나투어 40만 마일리지** 제공(커플당) ※일부상품 제외
❷ 현장 예약시 **토스터기+스타벅스 1만원 기프티카드** 증정

소개 이벤트 | 결혼을 준비하시는 지인을 소개시켜주세요!

예약 성사시 소개시켜 주신 분께는 **5만원 신세계 모바일상품권**과
예약하신 커플께 **5만원 하나투어리스트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입니다.
(허니문 예정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도 동일혜택 적용)
사전 온라인 신청 필수 http://me2.do/FegLcydp
※ 소개이벤트 신청 후 주말상담회 참여 시 두가지 혜택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01 발리 6일

푸리 2박+불가리 오션뷰 2박

1,831,1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❶

▶9월 매주 토, 일, 월요일 출발

- 발리(4) ● 9월 한정특가
- 빌라 내 레스토랑 디너 1회와 런치세트 포함
- 발리 문화 체험 및 우붓 관광, 시내관광 포함
- 푸리 누사두아 디럭스룸 2박+불가리 원베드 오션뷰 풀빌라 2박
- 4회 마사지 포함
  - 아로마 오일 마사지, 초코렛 스파 2회, 황실 전통 지압 마사지



02 파리/스위스 7일/8일

대한항공 좌석확보

3,269,8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9월~11월 매주 일, 월요일 출발

- 파리(3)-인터라켄(2)-취리히(1/0) ● 2억원 여행자보험 가입
- 파리 시내 인기호텔! NOVOTEL TOUR EIFFEL 호텔 확정
- 경력 5년이상의 스타가이드와 함께 관광(파리 1일+스위스 2일)
- 한국인 가이드의 편안한 공항↔미팅&샌딩서비스 포함
- 에펠탑 조망 56층 높이 파리 빌딩 특식
- 하나투어 전용 테이블 스위스 특식
- 리얼 야경! 20시이후 야경투어+대표 옵션 세느강 유람선 포함



03 오아후 6일/7일

쉐라톤 와이키키

2,792,0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7월 4일~12월 매주 토, 일, 월요일 출발

- 오아후(4) ● 와이켈레 아울렛 포함한 동부해안 섬일주
- 대한항공 이용시 쉐라톤 와이키키 전박 킹베드 개런티
- 사전 예약할인-커플당 120일전 40만원/90일전 30만원/60일전 20만원
- 하나우마베이 스노클링 1인요금으로 동반자 무료혜택
- 현지 하나투어 투어라운지 운영
  - 위급시 도움요청, 와이파이에그 대여, 할인쿠폰, 현지정보 제공 등
- 특식:메리엇 와이키키 호텔 내 쿠히오그릴뷔페 디너, 카후쿠새우트럭, 씨푸드뷔페 포함



04 푸껫 ★신부무료 6일

마이카오드림 나타이 풀테라스 풀스윗(2+2)

1,700,0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❶

▶9월~12월 14일 매주 토, 일요일 출발

- 푸껫(4) ● 로맨틱 요트투어 & VOD촬영 포함
- 마이카오드림 나타이 리조트 스파 90분 체험
- 캐리어 랩핑 서비스(커플당 1개)
- 데이터 무제한 7일 USIM카드(커플당 1개 제공)
- 리조트 선셋 디너 1회 포함, 아프로디테쇼 관람

☎ 예약문의 **02)2127-1234**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 유류할증료(발권일/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식사요금 등 필수경비 모두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 **선택경비(관광):있음/없음**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 **안전경보단계** : ❶여행유의 ❷여행자제 ❸철수권고 ❹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2015.6.19. 업데이트 기준) ● **비자** :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 **매너팁** :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음. ● **본 여행상품은 (주)하나투어리스트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 **(주)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1993-000006호(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주)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 **고객칭찬/불편접수** :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 **최소 출발인원** : 10명 기준 ● **호텔** :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 **교통편** :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